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JEONJUINT'L SORI FESTIVAL

제14회 전주국제소리축제

2025. 8. 13. Wed — 2025. 8. 17. Sun · JEONJUINT'L SORI FESTIVAL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

본향의 메아리 (Echoes from the Homeland)

올해 소리축제는 타 지역의 예술 언어를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는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중심에 두고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음악 장르, 예술가,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한다. 이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전북, 한국, 그리고 세계의 음악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소리축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궁극적으로는 본향과 타향 사이 음악을 구성해 내는 공동체의 창조성을 환기하게 될 것이다.

This year, the Sori Festival centers on the diasporic nature of music, which meets artistic languages from different regions to create new genres, focusing on musical migration, artists and genres that reflect identity and nostalgia, and their reinterpretations. This aligns with the festival's spirit of valuing musical heritage of Jeonbuk, which have deep cultural roots, as well as of Korea and the world, ultimately evoking the creativity from communities that construct music between their homeland and residing territories.

표지설명

2025 소리축제 포스터는 키워드의 의미를 담아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소리와 연결하고 상징적으로 시각화했다. 이는 본향(뿌리)으로부터 뻗어나간 소리의 기억과 새롭고 다양하게 창조된 소리의 조각들이 전주와 전주세계소리축제로 모여 희망의 나무(축제의 나무)를 만들고, 이 나무를 중심으로 소리의 깊은 울림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명하듯이 다시 확산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he 2025 Sori Festival's poster symbolically visualizes the meaning of key theme by connecting sound to diaspora characteristics. The design symbolizes the memories of sound that have spread out from the homeland (roots) and the fragments of sound newly and diversely created, coming together at Jeonju and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to form a tree of hope (the tree of festival). From this tree, the profound resonance of sound again spreads out to people around the world again.



공연 상세 정보



sorifestival.com
[enjoy_sorifestival](#)
[sorifestival](#)
[sori_festival](#)
[sorifestival](#)

외국인을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

Bravo Korea 앱 출시!



한국 생활 정착 필수 앱
Bravo Korea

1588-2266

외국인 전문 상담원과 편하게 상담해 보세요!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Bravo Korea 고객센터(1588-226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다-3295호(유효기간: 2026.06.04.까지)

Bravo! Start your new life in Korea with Bravo Korea.

bravo
KOREA



금융 서비스

생활비나 집세가 부족할 때, 쉽고 빠르게 앱을 통해 모국어로 금융 상담과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해외송금 비교

해외송금 비교 서비스로 10개 이상의 해외송금업체의 송금환율과 수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비교

알뜰폰 요금제 비교 서비스로 20개 이상의 최저가 알뜰폰 요금제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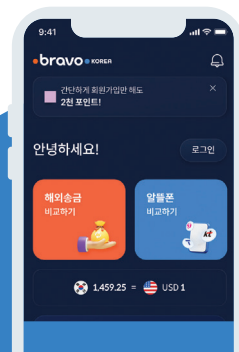
심토미 의료 서비스

AI문진을 통해 증상을 체크하면 분석결과가 다국어로 번역돼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손쉽게 진료하고 처방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커뮤니티

교통카드 사용법, 외국인 전용보험,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한국생활 정보와 금융생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Contents

| | |
|--------------------------------|---------------------------|
| 06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 67 소리프론티어 |
| 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하의 글 | - 조선아, 공상, 우리음악집단 소옥, 시나비 |
| 10 조직위원장 환영사 | 70 [전주열티밋뮤직페스티벌×전주세계소리축제] |
| 12 집행위원장 감사의 글 | SORI UP! JUMF NIGHT |
| 14 페스티벌 맵(한국소리문화의전당) | 71 클래식&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
| 16 프로그램 일정표(한국소리문화의전당) | 72 [전북CBS×전주세계소리축제] |
| 18 페스티벌 맵(전주한옥마을) |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
| 19 프로그램 일정표(외부장소) | 74 전주의 아침 <자연소 프로젝트> |
| 20 티켓안내 | 75 [한국&프랑스] 나윤선&뱅자맹 무쎈 듀오 |
| 22 포커스 2025: 본향의 메아리 | 77 해외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 |
| 23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 | 78 스페인 포커스 |
| 26 폐막공연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 - 떼아뜨로 레알의 플라멩코 |
| 29 전통: 오래된 결 | - 리나 두르 보네트&홍승아&아렌트 흐로스펠트 |
| 30 판소리 다섯바탕 | - 비구엘라의 민속음악 |
| - 남상일, 이난초, 윤진철, 염경애, 김주리 | 83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
| 40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 거창 미야타 마유미의 쇼(笙) |
| - 황지영, 류창선, 김미성, 김기진, 이서희 | 84 [사이프러스] 무슈 두마니 |
| 43 산조의 밤 <이지영, 이용구> | 85 [브라질] 비시가 70 |
| 46 성악열전 | 86 [일본] 시부시 치리멘타이코 |
| - 동희스님의 범패 | 87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
| - 조순자의 여창가곡 | 88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 코시 |
|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 89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
| - 이춘희의 경기민요 |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
| 54 디아스포라 포커스 | 91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 글로벌 랩 |
| - 지순자의 신민요 | 92 소리학술포럼 |
| - 윤은화의 양금로트 | 94 [마스터 클래스] 이난초, 윤진철 |
| 58 [강릉단오제×전주세계소리축제] 푸너리 | 95 찾아가는 소리축제 & 소리캠프 |
| 59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 96 맛있는 소리축제 |
| 60 전주의 아침 | 97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 |
| - 훈, 통소, 생활산조 | 98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 |
| - 김일규류 바이올린 산조 | 100 스태프 |
| - 류경화의 철현금 | |
| 63 피리밴드 저클 | |
| 64 이날치 | |
| 65 서도밴드 | |
| 66 송소희 | |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 **sori**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협찬사

전북은행 **전북농협**



파트너



전주MBC 전북CBS 인경arteTV

환영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스물네 번째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명감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님과 김희선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닷새 동안 펼쳐지는 축제를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실 모든 공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북 도민의 자부심입니다.

국악의 본향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팝(K-POP)의 원형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판소리, 기악 등 한국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월드뮤직,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왔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전통음악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전통음악 본연의 색채에 더 집중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큼니다. 고전 심청전을 완전히 재해석한 개막공연 ‘심청(PANSORI THEATER SHIM CHEONG)’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담은 폐막공연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까지 모든 무대가 하나같이 귀하고 귀한 공연입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공연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길 바랍니다.

올림픽을 통해 전북의 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길 희망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의 본향이라는 자긍심을 안고 이제 하계올림픽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케이(K)-문화가 어우러진 올림픽이 전북 전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애써오신 예술인 여러분과 우리 소리를 아끼는 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리의 맛과 흥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가 함께 모여, 음악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축제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무색해질 만큼 열정과 신명으로 가득한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We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that the 24th Jeonju Int'l Sori Festival is held in As everything turns deep gree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Chairman Lee Wangjun of th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Chairwoman Kim Heesun of Executive Committee, and all other staffs who have together prepared for the festival with a sense of mission and passion. We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the performers who will fill the five days of the festival with music.

Jeonju Int'l Sori Festival is a Pride of Jeonbuk State Residents.

Jeonbuk State, the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s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origins of K-POP, which has currently captured a global attention. Since 2001,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has showcased a variety of genres of music, including traditional music including pansori and instrumental music, as well as world music, classical music, and popular music. Bridging tradition and contemporariness, and connecting Korea with the global, our festival has grown to become one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music festivals.

We Hope the Festival will Become a Time for Rediscovering Traditional Music

This year's Jeonju Int'l Sori Festival focuses more on the original colors of traditional music with the key theme of “Echoes of the Homeland,” making it even more anticipated. From the opening performance “PANSORI THEATER SHIM CHEONG),” a complete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Simcheong,” to the closing performance “Dancing Grandmothers,” which commemorates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every stage will be offered as a precious and meaningful performance. We hope that all the performances, which have been prepared with great care over a long period of time, will make move and comfort you.

We Hope the Sounds of Jeonbuk will Globally Resonate through the Olympics.

Jeonbuk State, proud of its heritage as the center of culture and arts, is now moving forward toward the greater dream of hosting the Summer Olympics. We will strive with all our hearts to make the Olympics with K-culture a reality in Jeonju. We kindly request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all artists who have dedicated their efforts to the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the audience who has loved those sounds.

We Hope to Enjoy the Charm and Excitement of Music.

In our festival, artist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come gather to communicate and grow through music. We hope the festival will be filled with passion and excitement that will make the summer heat disappear. We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happiness in the future. Thank you.

2025. 8.

Kim Kwan-young,
Governor of Jeonbuk State

Welcome Message

축하의 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초록이 짙어지고 계절의 열정이 절정에 이르는 8월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정과 땀이 빛나는 계절, 소리의 향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리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꾀하며 전통과 동시대 음악들을 선보이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또 한 번 신명 가득한 장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향의 메아리’라는 키워드로 펼쳐지는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뿌리의 음악에 중심을 두고, 새롭게 창조된 다양한 예술가들의 음악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채롭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고,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나 소리로 소통하는 커다란 장이기도 합니다. 낯설지만 친숙하기도 한 세계음악이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닷새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한층 더 밀도 높은 음악 전달로 예술성을 더하고, 야외에서는 접근성과 개방감으로 음울의 섬세함을 느끼며 한여름 밤 축제를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왕준 조직위원장님, 김희선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문화 축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축제를 통해 모든 분에게 아름다운 소리의 울림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We sincerely congratulate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

It is August, when the greenery deepens in the summer heat and the fever of the season reaches its peak.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a feast of sound, will be held in this season that shines with passion and sweat as much as the hot summer sun.

The Festival, which has always striven for change and growth through new attempts and has presented traditional as well as contemporary music, is expected to once again unfold as a lively event.

This year's Jeonju Int'l Sori Festival, themed “Echoes of Home,” will focus on the music of our roots, showcasing freshly created performances by various artists. We hope you will make special memories at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where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 wide variety of music genres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Korea.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is a venue where artists meet audiences and other artists to communicate through sound. The unfamiliar yet familiar music of the world will provide audiences with new cultural experiences.

This festival will be held for five days at various venues, captivating the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and thereby helping them forget the heat of midsummer. In indoor performances, music will be delivered with even greater intensity, adding to the artistic quality, while outdoors, the more accessible and open atmosphere will allow you to enjoy the subtleties of the melodies and enjoy the midsummer night festival to the fullest.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Organizing Committee Chair Lee Wangjun, Executive Committee Chair Kim Heesun, and all other staffs for their hard work in preparing for the event. Once again, we congratulate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 which is a cultural party for people around the world, and hope that the festival will bring beautiful sounds to everyone. Thank you.

2025. 8.

Moon Seungwoo,
Chairman of Jeonbuk State Council

Congratulatory Message

환영사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

안녕하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지 3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점차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끝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축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소리축제는 올해도 조직위원들과 집행위원, 사무국 식구들과 함께 알차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국악을 필두로 심청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 전통성과 실험성, 예술성, 대중성이 공존하는 무대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향후 창극의 새로운 지평도를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세계 초연의 심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리축제는 올해도 판소리 다섯바탕, 성악열전, 전주의 아침을 비롯해 클래식과 월드뮤직, 학술포럼, 소리썸머나잇, 어린이 소리축제 등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남녀노소, 대중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다 같이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 기간 발산되는 열정이 전주올림픽 유치라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문화 가교 역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이강주, 길위의커피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축제를 준비해주신 조직위원님들, 집행위원님들, 김희선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대합니다!

2025. 8.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

Good Evening, everyone. I am Lee Wang-jun, the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Welcome to our Festival which represents South Korea.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I took on the role of organizing committee chair for the Sori Festival. With the support of all the residents of Jeonbuk State,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has gradually grown into a festival that represents both Korea and its traditions.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residents for their endless support.

We have prepared a variety of programs so that this year's festival will become one that resonates with the residents.

After our successful transition to a summer festival last year, the Sori Festival has once again prepared a colorful program that everyone can enjoy, with the help of the organizing committee, executive committee, and office staff. This year's Festival, focusing on traditional Korean music as its core, featured a new work centered on the theme of "Simcheong." We have reinterpreted <Simcheong-ga,> one of the five classic pansori pieces, with a fresh perspective, creating a stage production that harmoniously blends traditionality, experimentation, artistry, and accessibility. We are confident that this work will set a new standard for changgeuk. We invite your attention to the world premiere of "Simcheong."

Additionally, the Sori Festival features a diverse lineup of performances, including the sections of <Five Pansori Stories>, <Vocal Virtuosi>, <Morning of Jeonju>, and various classical and world music performances, academic forums, <Sori Summer Night>. and <Sori Festival for Children>, all of which blend traditionality and contemporariness, Korea and the global, and target to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We hope everyone to enjoy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which will bring a refreshing breeze to the summer.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to Governor Kim Gwan-young for his generous support, and to Jeonbuk Bank, NH Nonghyup Bank, Lee Gangju, and GIL-Coffee for their sponsorship. We also convey our deepest appreciation to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executive committee members, Executive Committee Director Kim Hee-sun, and the office staff for their hard work in preparing the festival.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at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5. 8.

Lee Wangju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elcome Message

감사의 말씀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위원장 김희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축제의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입니다. 음악은 이주하고 교류하며 인류 문화에 다양성을 더합니다. 타지역의 예술 언어를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는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에 중심을 두고 올해 소리축제는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음악 장르, 예술가,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합니다. 이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전북, 한국, 그리고 세계의 음악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소리축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궁극적으로는 본향과 타향 사이의 음악을 구성해 내는 공동체의 창조성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로서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24년 소리축제가 공연예술제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했다면 올해는 저변을 넓히고 세계로 확장하는 소리축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장르별 거점화 사업에 전통 장르 대표로 소리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소리축제는 이를 계기로 우리의 예술과 예술가를 글로벌의 세계로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술가와 관객 여러분, 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영 도지사님, 후원사, 조직위원, 집행위원,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 일년내내 축제를 준비해 온 우리 사무국 식구들과 연출, 감독, 스태프, 소리천사 및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리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소리축제는 더욱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올해 소리축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8.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

We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who visit the 24th Jeonju Int'l Sori Festival. I am Kim Hee-sun, the executive director. We truly thank all of you who have come to the Festival again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

This year's festival key theme is "Echoes from the Homeland." Music enriches human culture's diversity through migration and exchange. Focusing on music's diasporic nature through which musical genres encounter artistic languages from other regions and thereby create new forms, this year's festival highlights musical migration and identity, musical genres and artists that embodies nostalgia, and modern reinterpretations associated with these keywords. This aligns with the spirit of the Sori Festival, which has valued the musical heritage of Jeonbuk province, Korea, and the world, all of which have deep cultural roots. We believe this will allow us to experience about the creativity yielded from communities that shape music between the homelands and the lived territories.

he Jeonju Int'l Sori Festival aims to transcend the boundaries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volve into a global festival, as a 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of South Korea. While the 2024 Festival declared its identity as a performing arts festival, this year marks the inaugural year of the Festival expanding its reach and becoming a global event.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genre festival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Arts Management Support Center's "Genre-specific Hub Development Project," the Sori Festival will serve as an important platform to introduce domestic arts and artists to the global stag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to the artists and audiences who have made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more special, to Governor Kim Kwan-young who is dedicating efforts in hosting the Olympics, to our sponsors, organizing committee and executive committee members, members of Jeonbuk State and the Province's Assembly, and to all the staffs of our executive office who have worked tirelessly throughout the year to prepare for the festival, as well as to the directors, producers, staffs, "Sound Angels," and everyone else who has supported us. Despite the summer heat, our festival receives more energy thanks to the audience who have come to enjoy. Once again, we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has joined us for our festival.

2025. 8.

Kim Hee-sun,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Thank You Message



전주세계소리축제



- 중합안내소 Information
- 중합매표소 General Ticket Office
- 공식 굿즈 Official MD
-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 아티스트 라운지 Artist Lounge
- 공연장소 Venue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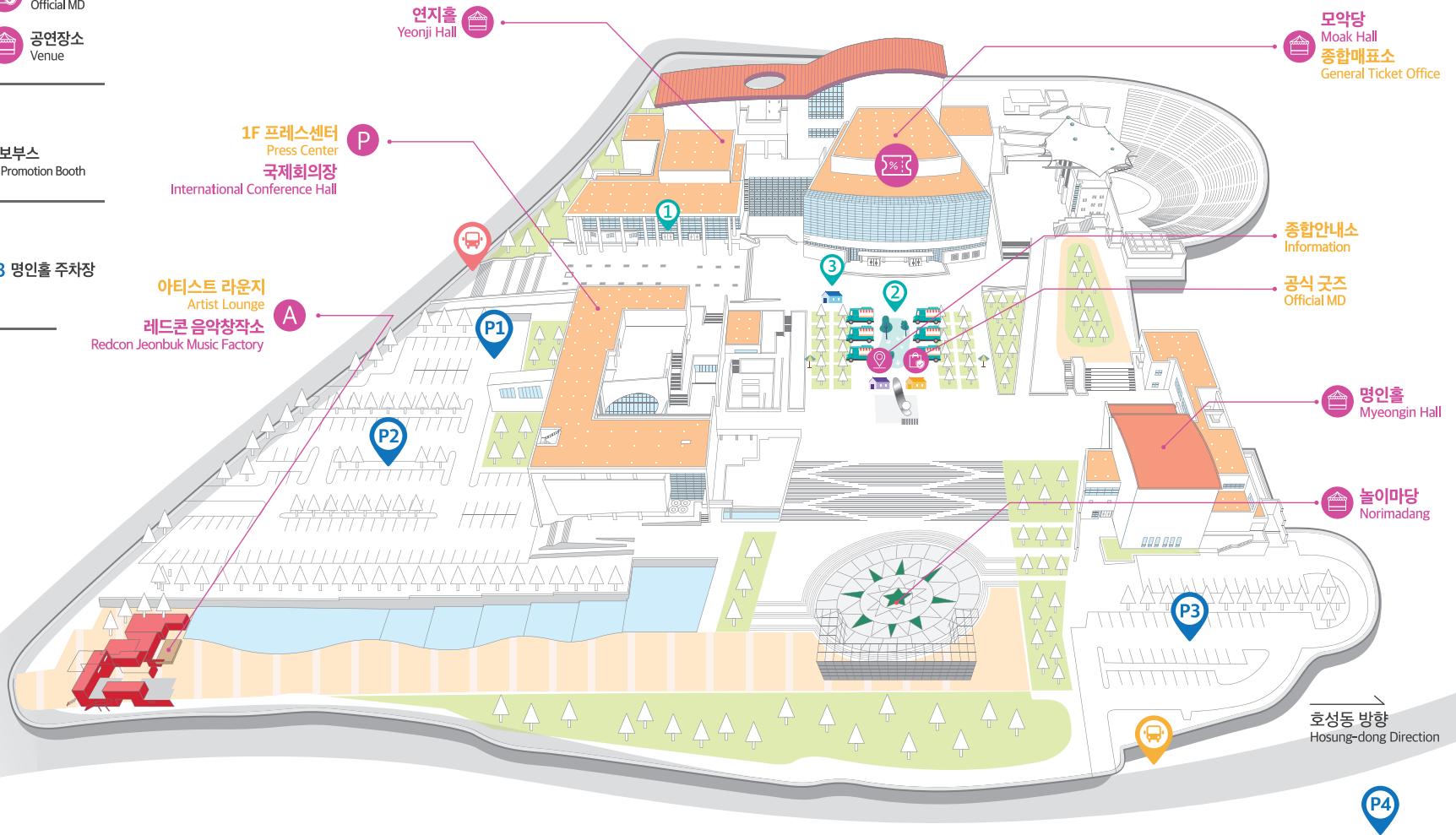
-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 푸드존 Food Zone
- 협력홍보부스 Sponsor Promotion Booth

주차장 Parking Lot

- P1 연지홀 지하주차장
- P2 국제회의장 주차장
- P3 명인홀 주차장
- P4 동물원 주차장(18시 이후)

- 시내버스 승강장 Bus stop
- 셔틀버스 승강장 Shuttle Bus Stop

송천동 방향
Songcheon-dong Direction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 장소/일자 | 8/13(수) | 8/14(목) | 8/15(금) | 8/16(토) | 8/17(일) |
|----------|--|---|---|--|--|
| 모악당 | 19:30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 | 19:30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 | | 16:00 [전북CBS× 전주세계소리축제]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 16:00 [스페인 포커스] 떼아뜨로 레알의 플라멩코 |
| 연지홀 |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남상일 | 15:00 [판소리 다섯바탕] 홍보가-이난초 |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적벽가-윤진철 |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염경애 |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심청가-김주리 |
| 명인홀 |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13:30 심청가-황지영 15:30 홍보가-류창선 17:30 춘향가-김미성 |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13:30 수궁가-김기진 15:30 적벽가-이서희 | 13:30 [성악열전] 동희스님의 범패 | 13:30 [성악열전] 조순자의 여창가곡 | 13:30 [성악열전] 이춘희의 경기민요 |
| | | | 16:30 [산조의 밤] 이지영, 이용구 | 17:00 [아시아월드뮤직 어워드] 거장 미야타 마유미의 쇼(笙) | 17:00 [디아스포라 포커스] 윤은화의 양금로드 |
| | | | 18:30 [강릉단오제X 전주세계소리축제] 푸너리 | 18:30 [성악열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 18:30 [일본] 시부시 치리멘타이코 |
| | | | 19:30 피리밴드 저클 | 19:30 [사이프러스] 무슈 두마니 | 19:30 [브라질] 비시가 70 |
| | | | 20:30 [스페인 포커스] 비구엘라의 민속음악 | 20:30 [한국&프랑스] 나윤선& 뱅자맹 무쎈 듀오 | |
| | | | 21:30 이날치 | 21:30 서도밴드 | 21:30 [폐막공연]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
| 중회 의장 | 14:00 [소리학술포럼] 한국국악학회 | 14:00 [소리학술포럼] 한국공연문화학회 | 14:00 [소리학술포럼] 세계음악학회 | 14:00 [소리학술포럼] 한국축제포럼 | 14:00 [소리학술포럼]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

※ 야외공연은 현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연 시간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TIME TABLE : Sori Arts Center of Jeonbuk State

| Date/Venue | 8/13(Wed) | 8/14(Thu) | 8/15(Fri) | 8/16(Sat) | 8/17(Sun) |
|--|---|--|---|--|---|
| Moak Hall | 19:30 [Opening Performance] National Chang- geuk Company of Korea <PANSORI THEATER SHIM CHEONG> | 19:30 [Opening Performance] National Chang- geuk Company of Korea <PANSORI THEATER SHIM CHEONG> | | 16:00 [Jeonbuk CBS × Jeonju Internation- al Sori Festival] Son Yeoleum & Going Home Project | 16:00 [Spain Focus] Flamenco of Teatro Real |
| Yeonji Hall | 15:00 [Five Pansori Stories] Sugung-ga by Nam Sangil | 15:00 [Five Pansori Stories] Heungbo-ga by Lee Nancho | 15:00 [Five Pansori Stories] Jeokbyeok-ga by Yoon Jincheol | 15:00 [Five Pansori Stories] Chunhyang-ga by Yeom Gyeongae | 15:00 [Five Pansori Stories] Simcheong-ga by Kim Juri |
| Myeongin Hall | [Ode to Youth – Young Pansori] 13:30 Simcheong-ga by Hwang Jiyeong 15:30 Heungbo-ga by Ryu Changseon 17:30 Chunhyang-ga by Kim Miseong | [Ode to Youth – Young Pansori] 13:30 Sugung-ga by Kim Gijin 15:30 Jeokbyeok-ga by Lee Seohhee | 13:30 [Vocal Virtuosi] Venerable Donghee’s Beompae | 13:30 [Vocal Virtuosi] Cho Sunja’s Female Gagok | 13:30 [Vocal Virtuosi] Lee Chunhee’s Gyeonggi Minyo |
| | | | 16:30 [Sanjo Night] Lee Jiyeong and Lee Yongkoo | 17:00 [Asia World Music Award] Master Miyata Mayumi’s Shō | 17:00 [Diaspora Focus] Yoon Eunhwa’s Yanggeum Road |
| | | | 18:30 [Gangneung Danoje X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itval] Puneori | 18:30 [Vocal Virtuosi] Sunchang Nongyo Geumgwadeulsori | 18:30 [Japan] Shibushi Chirimen Taiko |
| | | | 19:30 JC Crew | 19:30 [Cyprus] Monsieur Dumani | 19:30 [Brazil] Bixiga 70 |
| | | | 20:30 [Spain Focus] Folk Music of Vigüela | 20:30 [Korea & France] Younsun Nah & Benjamin Moussay Duo | 20:30 Song Sohee |
| | | | 21:30 LEENALCHI | 21:30 sEODo BAND | 21:30 [Closing Performance] Eun-Me Ahn Company <Dancing Grandmothers> |
|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1F | 14:00 [Sori Academic Forum] Korean Musicalogical Society | 14:00 [Sori Academic Forum] The Research of Performance Art and Culture | 14:00 [Sori Academic Forum] Korean Socieity for World Music | 14:00 [Sori Academic Forum] Korea Festival Forum | 14:00 [Sori Academic Forum] The Art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 태조로 Taejo-ro

은행로 Eunhaeng-ro

전라감영로 Jeollagamyeong-ro
- 팔달로 Paldal-ro

풍남문길 Pungnammun-gil

전주천 Jeonjucheon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 외부장소

| 일자/장소 | 8/13(수) | 8/14(목) | 8/15(금) | 8/16(토) | 8/17(일) |
|--------------|--|--|--|---|---|
| 우리놀이터 마루달 | 10:30 / 13:30 ₩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 코시 | 10:30 / 13:30 ₩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 코시 | | | |
| 남부시장 모이장 | | | 10:30 / 13:30 ₩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22:30 ₩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 전주세계소리축제] SORI UP! JUMF NIGHT | 10:30 / 13:30 ₩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 10:30 / 13:30 ₩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
| 하얀 양옥집 | | | 15:30 [마스터 클래스] 이난초 | 15:30 [마스터 클래스] 윤진철 | |
| 인재고택 학인당 | | | 10:30 ₩ [전주의 아침] 김일규류 바이올린 산조 | 10:30 ₩ [전주의 아침] 자연소 프로젝트 20:00 ₩ [디아스포라 포커스] 지순자의 신민요 | 10:30 ₩ [전주의 아침] 류경화의 철현금 |
| 완주 아원 | | 10:30 [전주의 아침] 훈, 통소, 생황산조 13:30 [스페인 포커스] 리나 투르 보네트 & 홍승아 & 아렌트 호로스펠트 | | | |

2025 TIME TABLE : Outside Venue

| 일자/장소 | 8/13(Wed) | 8/14(Thu) | 8/15(Fri) | 8/16(Sat) | 8/17(Sun) |
|------------------------|---|--|---|---|---|
| Wuriroiter Maroodal | 10:30 / 13:30 ₩ [Workshop for Traditional Polish Folk Song] Kosy | 10:30 / 13:30 ₩ [Workshop for Traditional Polish Folk Song] Kosy | | | |
| Moijang | | | 10:30 / 13:30 ₩ [Enjoying XR Pansori through Game] Four Legs are Good, Two Legs are Bad 22:30 ₩ [JUMF × JISF] SORI UP! JUMF NIGHT | 10:30 / 13:30 ₩ [Enjoying XR Pansori through Game] Four Legs are Good, Two Legs are Bad | 10:30 / 13:30 ₩ [Enjoying XR Pansori through Game] Four Legs are Good, Two Legs are Bad |
| Hayan yangokjip | | | 15:30 [Master Class] Lee Nanchu | 15:30 [Master Class] Yoon Jincheol | |
| Hakindang | | | 10:30 ₩ [Morning of Jeonju] Kim Ilgu Style Violin Sanjo | 10:30 ₩ [Morning of Jeonju] Jayeonso Project 20:00 ₩ [Diaspora Focus] Ji Sunja's Sinminyo (New Folksongs) | 10:30 ₩ [Morning of Jeonju] Ryu Gyeonghwa's Cheolhyeongum |
| Wanju Awon | | 10:30 [Morning of Jeonju] Hun, Tungso, and Saenghwang Sanjo 13:30 [Spain Focus] Lina Tur Bonet & Hong Seunga & Arend Grosfeld | | | |

티켓 안내

티켓 구입
온라인 예매

현장 매표소 운영

|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
| 종합매표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1층 안내데스크 | 12:00~21:00 |
| 간이매표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연지홀·명인홀 1층 안내데스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外 : 각 프로그램 장소 입구 | 공연 시작 1시간 전 |

- 입장 및 공연 관람 유의 사항
-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모든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 수령으로 운영됩니다.
(*모악당 공연 : 시작 2시간 전부터 / 그 외 : 1시간 전부터)
 - 티켓수령 시 예매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실내 공연장을 제외한 유료 공연의 티켓은 팔찌 형태로 제공됩니다.
 - 공연 시작 이후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입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1명당 1장의 티켓을 소지하여야 하며, 티켓이 없을 시에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입장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티켓할인 안내

| | |
|-----|--|
| 20% | JB카드(전북은행)(1인 4매), NH농협카드(농협은행)(1인 4매), 초·중·고 학생(본인 1매), 전북특별자치도민(본인 1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숙박(1인 2매) |
| 30% | 단체할인(20명 이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1인 4매), 전북투어패스카드(1인 1매), 예술인 패스(본인 1매) |
| 50% | 문화누리카드(1인 4매), 65세 이상 성인(본인 1매), 국가유공자(1인 2매), 의사자·의사자(1인 2매), 장애인(1인 2매) |

- 모든 할인은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공연 당일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 지참 필수이며, 미지참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민 할인’ 증빙은 거주·재학·재직·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권·명함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숙박 할인’과 ‘전북투어패스카드 할인’ 증빙은 축제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8/13~8/17)
- 1만원권 정액 공연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할인만 적용됩니다.
- 학인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티켓 운영

| | |
|------|---------------------------------------|
| 구매처 | NOL 인터파크 nol.interpark.com/ 1544-1555 |
| 기간 | 6월 24일(화)~8월 17일(일) |
| 티켓문의 | 063-232-8395 |

Ticket
Information

Ticket purchase
Online Reservation

On-site Purchase

| Ticket Offices | Location | Operating hours |
|------------------------------------|---|---------------------------------|
| General Ticket Office at Moak Hall | Sori Arts Center Moak Hall, 1F, Information Desk | 12:00 ~ 21:00 |
| Temporary Ticket Office | Sori Arts Center : Information Desk at Yeonji Hall, Myeongin Hall Other Venues : Entrance of the Respective Performances | 1 hours before the event starts |

- Notices on Entrance and Performance-watching
- Visitors with reservation can receive ticket at the ticket office next to performance venue on the day of event since 2 hours prior to the beginning of performance.
 - You must bring your ID card and show the reservation number for receiving ticket.
 - Tickets are offered in the form of a wristband for day-pass holders, which allows you to enter and exit freely during the outdoor performance and parts of exhibition programs.

Discount Information

| | |
|-----|--|
| 20% | JB Card Holder (Jeonbuk Bank) (Up to 4 People), NH Card (NH Nank) (Up to 4 Peopl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In Person), Jeonbuk State Resident (In Person), Visitors of Accommodations within Jeonbuk State (Up to 2 People) |
| 30% | Group Discount (Over 20 People), Paid-up Member of Sori Arts Center of Jeonbuk State (up to 4 People), Jeonbuk Tour Pass Card Holder (In Person), Artist Pass Holder (In Person) |
| 50% | Culture Nuri Card (Up to 4 People), Adult over the Age 65 (In Person), Person of National Merit (Up to 2 People), Killed or Wounded for a Righteous Cause(Up to 2 People), Disabled Person (Up to 2 People) |

- A double discount using multiple options is unavailable.
- In case of not bringing required document, the difference should be paid.
- Proof of residency, studentship, employment or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can be substitutionally used for discount type of ‘the Jeonbuk State Resident’. (Passport or business card is not acceptable.)
- Discounts for “Visitors of accommodations within Jeonbuk State” and “Jeonbuk Tour Pass Card” is valid only the proof of eligibility associated with the festival period (August 13–17).
- In case of 10,000₩ Performance, only the discount options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and for disabled persons are applied.
- Discounts are not applied to programs held at Hakindang.

Online Ticket Reservation

| | |
|----------------------|-----------------------------|
| Where to Buy | |
| NOL interpark | nol.interpark.com 1544-1555 |
| Reservation Period | June 24(Tue)~August 17(Sun) |
| For More Information | 063-232-8395 |

포커스 2025: 본향의 메아리 Focus on 2025: Echoes from the Homeland

2025년 ‘포커스 2025’에서는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과 폐막공연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를 만날 수 있다. 올해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은 국립창극단 전 단원을 포함해 150여 명이 출연하는 대작으로 국립극장(국립창극단)과 공동제작을 통해 무대에 올리는 첫 작품이다.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오페라 연출가 요나 김이 첫 판소리 기반 작품에 도전하며, 극본과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막공연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안은미가 춤추는 할머니들의 몸짓을 담아낸 기록을 무대 위의 몸짓과 어우러지게 하며 이에 대한 경의로움을 전한다.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동이를 포함한 전북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Focus 2025” will feature the opening performance <Simcheong> by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and the closing performance, <Dancing Grandmothers> by Eun-Me Ahn Company. This year’s opening performance, “National Changgeuk Company's New Production <Simcheong>,” is a grand-scale production featuring over 150 performer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It is the first work to be staged through a joint production with the National Theater (National Changgeuk Company). Yona Kim, an opera director actively working in Europe, is taking on the challenge of her first work based on pansori, handling both the script and direction, generating higher anticipation. The closing performance, “Dancing Grandmothers” by Eun-Me Ahn Company, is a blending of the recording of the movements of dancing grandmothers with their stage movements, which convey a sense of reverence. The Sori Festival stage will also feature a special performance by elderly residents of Jeonbuk Province, including those born in the year of liberation (1945),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전주세계소리축제 × 국립극장 공동제작]

개막공연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

Opening Performance

<PANSORI THEATER SHIM CHEONG>

8. 13. Wed – 14. Thu 19:30

모악당 Moak Hall

15세 이상 Over 15 years

R 70,000 S 50,000 A 30,000

시공을 초월하여 다시 태어난 ‘심청’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국립극장이 공동제작하는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이 소리축제 개막공연 무대에 오르며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연다. 국립창극단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심청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했던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낸다. 전통 판소리의 깊이를 고스란히 유지하되, 원전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 캐릭터 등을 자유롭게 변형해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다.

극본과 연출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이 맡았다. 2017년 오페라 전문지 오펜벨트 선정 ‘올해의 연출가’, 2020년 독일에 권위 있는 예술상인 파우스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2024년 국립오페라단 <탄호이저>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요나 김은 시공을 초월해 경계를 넘나드는 해석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전달되는 보편적인 감성을 <심청>에 담아낸다. 창극의 중심이 되는 작창과 음악감독은 창극 <변강쇠 점 찢고 웅녀> <귀토> <리어>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등 국립창극단의 대표작에 참여해 온 한승석이 맡아 판소리가 지닌 본연의 매력에 음악적 깊이를 더한다. 이외에도 세계 유수의 오페라 축제에서 활약해온 독일 창작진이 무대 미술에 합류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배우의 감정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라이브 카메라 기법으로 인물의 내면과 정서를 더욱 섬세히 전달하며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높인다.

출연진 150여 명이 펼치는 대형 창극 탄생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 ‘심봉사’역은 더블 캐스팅으로 배우별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선보인다. 주인공 ‘심청’ 역에는 <변강쇠 점 찢고 웅녀> ‘웅녀’ 역, <춘향> ‘춘향’ 역으로 맑고 섬세한 소리로 관객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지난 4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소리꾼 김윤희가 연기한다. 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메시지를 지닌 심청의 캐릭터를 호소력 있는 연기를 통해 표현할 예정이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에서 세대를 넘나드는 배역을 맡으며 관객을 사로잡아왔던 두 배우가 눈이 먼 심봉사를 연기하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회의 고정관념과 기득권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뽕덕어멈’ 역에는 이소연이, 김미진과 김금미가 각각 ‘노파심청’, ‘장승상덕 부인’ 역을 맡아 무대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하여 시존단원, 무용수 아역배우, 합창단 등 157여 명의 출연진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

“Simcheong” Reborn beyond Spacetime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 and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coproduces <Simcheong>,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new production, which will open the festival. The performance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which signed a MOU contract in 2023 to promote performing art culture.

Unlike the traditional pansori “Simcheong-ga,” which centers on the themes of filial piety and self-sacrifice, the new “Simcheong” presents a different perspective by portraying the protagonist, Simcheong, as a figure who represents all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have been oppressed and deprived of their voices and power. Through the Regietheater technique, which freely transforms time, space, and characters without being bound by the original content to create a new narrative, the work shows the depth of traditional pansori while infusing it with fresh perspectives and messages.

The work is written and directed by Yona Kim, who has been actively working in Europe, mainly in Germany. She was designated “Director of the Year” by the opera magazine <Opernwelt> in 2017, and was nominated for the Faust Award in 2020. In 2024, she received critical acclaim for her direction of “Tannhäuser” with the National Opera Company. Yona Kim hopes to present “Simcheong”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allowing audiences to intuitively grasp its universal essence even when they have no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language, through interpretations that blur boundaries.

Lyricmaking will be worked by musical director Han Seungseok, who has composed music for various changgeuk pieces including <Madame Ong>, <Gwito>, <King Lear>, <The Merchant of Venice>, and <Boheoja: The Man Who Walks on Air>. He will bring the originality of pansori to the stage. In addition, a German crew with a variety of experience at world-renowned opera festivals will contribute to the stage design, perfecting a bold and innovative performance.

출연진

심청 김우정, 김윤희(객원)
노파심청 김미진
심봉사 김준수, 유태평양
뽕덕어멈 이소연
장승상덕 부인 김금미
낯선남자 이시웅
그 외 국립창극단원 및 객원

연주

거문고 최희훈
아쟁 박희정
고수 조용수
대금 이원왕
피리 이성도
가야금 황소라
타악 전계열
외 객원 연주자

제작진

극본·연출 요나 김 Yona Kim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무대디자인 헤르베르트 무라우어
Herbert Murauer
의상디자인 팔크 바우어 Falk Bauer
영상·라이브카메라 벤야민 뢰트케
Benjamin Luedtke
조명디자인 라인하르트 트라우
Reinhard Traub
무대·의상 협력디자인 프랑크 쇠렌발트
Frank Schoenwald

작곡 이예지

음향디자인 이상현
분장디자인 백지영
소품디자인 김상희
무대 협력디자인·기술코디네이터 김종현
의상·장신구 협력디자인 황수폴
연출 어시스턴트 다니엘라 키제베타
Daniela Kiesewetter
외



폐막공연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Closing Performance
Eun-Me Ahn Company <Dancing Grandmothers>

8. 17. Sun 21: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춤추는 할머니들의 몸짓을 담은 기록과 몸짓이 만나는 미학적 한정 무대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안은미가 1988년 창단한 안은미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2025 소리축제 폐막 무대에 오른다. 안은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안무가로, <新춘향> <심포카 바리> 등 여러 작품을 세계 각지에서 선보이며 전통을 낳은 유산이 아닌 오늘의 창작을 이끄는 동력으로 증명해왔다. 그는 한국적 정서를 세계무대로 이끌어내는 예술가로 올해 소리축제가 추구하는 ‘창조성’이라는 정신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뿌리와 미래, 로컬과 글로벌을 한데 품으려는 소리축제 무대에 안은미는 더없이 어울리는 예술가이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2011년 초연된 작품이자 이른바 ‘댄스 삼부작’의 하나로, 안은미가 전국을 돌며 만난 ‘춤추는 할머니들’의 몸짓을 담은 기록이자 그 몸짓들이 살아온 20세기의 어떤 증언이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한 이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실제 무대 위의 몸짓이 만나고 섞인다. 관객들은 그 건너어지는 몸짓과 거기에 배인 역사를 듣고, 느끼고, 즐기며 세상을 이어온 모든 몸들에 대한 미학적 한정 의 한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소리축제 무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동이(1945년생)’를 포함한 전북 지역 어르신들이 전문 무용수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작품이 지닌 공동체적 정신과 삶에 대한 경의를 더욱 깊이 있게 전한다.

An Aesthetic Tribute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Grandmothers’ Movements and their Recordings

“Dancing Grandmothers” by Eun-Me Ahn Company, founded by choreographer and dancer An Eunmi in 1988, will be staged at the closing performance of the 2025 Sori Festival. An Eunmi and her colleagues have presented their artworks including “New-Chunhyang” and “Symphoca Bari” to international stages, proving that tradition is not an outdated legacy but a driving force for new creations. These works show that she is an artist whose work resonates with the Sori Festival’s vision of uniting the root and the future, and the local and the global together.

“Dancing Grandmothers,” premiered in early 2011, is one of the troupe’s “dance trilogy.” This piece is a record of the movements of “dancing grandmothers” whom An Eunmi met while traveling around the peninsula, and a testimony to the 20th century through which these movements have lived. The documentary that records the individuals who have lived through a period of turbulence and the real movements on stage meet and blend together. Audiences will experience the gestures being passed on, hear the history embedded within them, and feel and enjoy them, becoming participants of an aesthetic tribute to all the bodies that have constructed the world.

This Sori Festival stage commemorates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elderly residents of Jeonbuk State, including those born in 1945, alongside professional dancers. This collaboration will deeply convey messages associated to the sense of community and respect for life, all of which are expressed through the work.



전통: 오래된 결 Being Heritage

올해는 전통의 원형을 오롯이 담아낸 섹션 ‘전통: 오래된 결’을 더욱 주목해 보길 바란다. 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창부터 시대의 명창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판소리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젊은 소리꾼들의 열정과 패기를 엿볼 수 있는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이지영 명인의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와 이용구 명인의 전추산류 단조 산조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도 놓치지 말자! 전통음악 뿌리의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현대를 반영하고 있는 음악을 한데 모은 <성악열전> 시리즈에서는 판소리를 제외한 한국의 대표 성악 장르(범패, 경기민요, 여창가곡, 향토민요)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창조되고 확산되는 뿌리의 음악들로 구성된 <디아스포라 포커스> 시리즈에서는 양금과 신민요를 선보인다. 강릉단오굿을 재해석해 연희 형태로 선보이는 ‘푸너리’ 공연은 신명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무대다.

The section “Being Heritage,” which faithfully features the essence of tradition, is particularly worth checking out this year. The representative branded performance of the Sori Festival, “Five Pansori Stories,” is designed to allow audiences of all ages to enjoy pansori performances together, featuring performances by renowned pansori masters of the era and rising stars. Do not miss <Ode to Youth: Young Pansori>, which showcases the passion and vigor of young pansori performers, and <Sanjo Night>, where audiences can enjoy the profound performances of Lee Jiyeong's own gayageum sanjo and Lee Yong-gu's Jeonchusan-ryu danjo sanjo. The <Vocal Virtuosi> series brings together music that reflects the present while preserving the essence of traditional music, featuring Beompae, gagok, minyo of Gyeonggi province, and deulsori. The <Diaspora Focus> series, which consists of newly created and spreading music rooted in tradition, showcases yanggeum and sinminyo performances. The “Puneori” performance, which reinterprets the Gangneung Danoje in a performative form, offers a stage brimming with vital energy.

출연진

안은미컴퍼니

안은미, 김혜경, 문용식, 정의영, 김덕영, 한가운, 조선재, 김세연, 이현서, 박세진

할머니들

강경자, 강영숙, 국점숙, 노영희, 모정애, 민경화, 송부강, 송영임, 신영임, 여인숙, 유숙자, 윤미자, 이순덕, 이혜숙, 전점례, 정성자, 정유옥

특별출연 정은혜

제작진

안은미컴퍼니

안무 및 의상 안은미

작곡 장영규

조명디자인 장진영

영상제작 남지웅, 김승환, 이상희, 이태석

무대감독 김지명

VJ 이태석

조명 프로그래머 이상민

컴퓨터매니저 김성빈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

수궁가-남상일

[Five Pansori Stories-
Masters of Our Era]

Sugung-ga by
Nam Sangil

8. 13. Wed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남상일의 정광수제 수궁가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타고 자라며 소리를 익힌 명창 남상일이 ‘수궁가’로 소리축제 무대에 선다. 판소리 다섯바탕을 모두 섭렵한 그는 안숙선 명창으로부터 ‘정광수제 수궁가’를 사사받았다. ‘정광수제 수궁가’는 동편제의 지조 송흥록으로부터 시작되어, 송흥록-송우룡-유성준-정광수로 전승된 소리다. 유려한 사설과 더불어, 힘 있는 통성과 우조 성음을 바탕으로 한 동편제의 특징 그리고 서편제의 정교하고 화려한 계면 성음까지 갖춘 짜임새 있는 소리로 정평이 나 있다.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온 자라와 위기를 재치로 빠져나가는 토끼의 좌충우돌 스토리는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한 이야기다. 남상일 명창의 시원한 성음과 재치 있는 입담, 관중을 사로잡는 너름새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의 해학을 담고 있는 ‘수궁가’와 어울리는 조합이기에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번 공연에는 명고 정준호가 복을 잡는다.

Nam Sangil's Jeong Gwangsu Style Sugung-ga

Born and raised in Jeonju, the center of pansori, Master Nam Sangil performs “Sugung-ga”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ving mastered all five stories of pansori, he studied “Jeong Gwangsu-je Sugung-ga” under the guidance of Master An Sukseon. Jeong Gwangsu style Sugung-ga, originated from Song Heungrok, the founder of the Dongpyeon-je (lit. the east-side's style),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Song Gwangrok, Song Wooryong, Yoo Seongjun, and Jeong Gwangsu. It is characterized by its elaborate lyrics and by the reflection of Dongpyeon-je style's powerful voice and its ujo tune, combined with Seopyeon-je's delicate and impressive gyemyeon tune.

The story of a terrapin, who went to the land to find a rabbit's liver for the sick dragon king, and a rabbit, who cleverly escapes his confronted danger, is a tale that remains relevant in our modern society. Master Nam Sangil's powerful voice, wit, and acting that captivates the audience, will bring the audience to the world of Sugung-ga in which a variety of humorous animal characters are alive.

* 해설 최혜진 *



남상일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수자
- KBS 국악대상 판소리 부문 수상
-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수상
-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수상
- 현) 수원대학교 국악과 특임교수



고수 정준호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11회 해남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역임
- 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

[판소리 다섯바탕-올해의 국창]

홍보가-이난초

[Five Pansori Stories-Treasure-master of the Year]

Heungbo-ga by
Lee Nancho

8. 14. Thu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이난초의 강도근제 홍보가

이난초 명창은 호남 예인 집안 출생으로 7세에 판소리에 입문하였으며, 통상성의 더늠과 수리성이 장기인 강도근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동편제 홍보가’를 이수했다. 이난초는 송만갑-김정문-강도근으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계승해 현재 국가무형유산 홍보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동편제는 <조선창극사>에서 처음 보이며, 섬진강 동쪽인 구례 남원 등지에서 전승된 소리로 조선 영조대 송흥록, 권삼득 등의 법제를 이어받은 소리다. 시작이 진중하고 호령조가 많은 우조가 특징이며, 소리의 끝은 짧게 끊어 담백한 맛이 있다. 거침없이 지르는 상청과 중하성의 표현력이 뛰어난 이난초 명창의 소리와 임현빈의 북 반주로 동편제 홍보가의 매력을 느껴보자!

Lee Nancho's Dongpyeon-je (Eastern Style) Heungbo-ga

Master Lee Nancho, born in an artist family of the Honam province (i.e.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egan studying pansori at her age of seven. She studied “Dongpyeon-je Heungbo-ga” under Kang Dogeun, renowned by his quality thick voice and his unique additions in the upper register. She inherited the Dongpyeon-je styl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Song Mangap to Kim Jeongmun to Kang Dogeun, and is currently designated as a holder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ungbo-ga.

The Dongpyeon-je styl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old document of The History of Joseon's Vocal and Theatrical Music, was passed down in areas east of the Seomjin River, including Gurye and Namwon. It follows the traditions of Song Heungrok and Kwon Samdeuk who were active during the King Yeongjo's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style is characterized by a solemn beginning, its ujo tune with strong voice, a short and straightforward song-endings that leave a simple, clean taste. Let us meet the charm of the Dongpyeon-je Heungbo-ga through the powerful high-pitches and highly-expressive mid- and lower-pitches sung by Master Lee Nancho, with the buk-accompaniment by Yim Hyeonbin.

* 해설 정병현 *



이난초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 2002 프랑스(파리) 정부 초청 춘향가(6시간) 완창 발표회
- 이난초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남도민요 등 다수 음반 발매
- 현) (사)강도근 동편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장



고수 임현빈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
- 제38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 2017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 현) 남원시립국악단 악장
- 목원대학교 출강

[판소리 다섯바탕-올해의 국창]

적벽가-윤진철

[Five Pansori Stories-Treasure-master of the Year]

Jeokbyeok-ga by
Yoon Jincheol

8. 15. Fri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윤진철의 보성소리 적벽가

‘보성소리’는 19세기 말에 보성을 거점으로 형성된 판소리 유파를 지칭하며 ‘강산제’라고도 부른다. 보성소리 안에는 ‘김세종제 춘향가’와 ‘강산제 심청가·수궁가·적벽가’ 그리고 정응민으로 상징되는 정씨 가문의 내림 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그중 적벽가의 계보를 살펴보면, 박유전-정재근-정응민-정권진, 윤진철로 이어져 왔으며, 박유전의 서편제를 바탕으로 새로이 만들어낸 소리제라 할 수 있다. 윤진철 명창은 보성소리를 오롯이 이어받았으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이다.

‘보성소리 적벽가’의 바다 짜임과 사설은 동편제나 동초제와 달리 진양장단의 삼고초려 대목이 초앞으로 먼저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또 동편제 적벽가에 장판교대전이 있는 대신 잣은 중모리와 잣은몰이 두 가지 장단으로 된 박망파 싸움 대목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수에는 명고 박시양과 조용수가 함께한다.

Yoon Jincheol's Boseongsori Jeokbyeok-ga

“Boseongsori” refers to a school of pansori that formed around Boseong in the late 19th century. This is also called “Gangsanje.” Boseongsori includes “Kim Sejong-je Chunhyang-ga,” “Gangsan-je Simcheong-ga, Sugung-ga, and Jeokbyeok-ga,” and repertoires transmitted through the Jeong family that is symbolized by Jeong Eungmin. Boseongsori Jeokbyeok-ga was a newly constructed style based on Park Yujeon's Seopyeon-je style, and then transmitted to Jeong Jaegun, to Jeong Eungmin, to Jeong Gwonjin, and to Yoon Jin-cheol. Master Yun Jincheol is a holder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nsori Jeokbyeok-ga, and has devotedly inherited the Boseongsori style.

The structure of Boseongsori Jeokbyeok-ga is unique compared to other styles. First, the depiction of the “three visits” in the jinyang jangdan (rhythmic pattern) comes first unlike other schools. Moreover, it features a section depicting the Battle of Bakmangpa (Bowang) in the two rhythms of fast jungmori and jainmori, instead of the section for the Jangpanpa (Changban) Battle that is included in the Dongpyeon-je style. Noting these differences between schools will be an interesting point for the listeners. Master Percussionists Park Siyang and Cho Yongsu will perform with him on the stage.

* 해설 최동현 *



윤진철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 제2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창부 장원
- 제25회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 2005 KBS 국악대상 판소리 부문 수상
- 2013 서암전통문화대상



고수 박시양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전라남도립국악단원 역임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역임
- (사)청암판소리고법보존회 이사장 역임
- 현) 전통문화체험마을 돌머리굿판 대표



고수 조용수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18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대통령상 수상
- 현) 국립창극단 기악부 상임단원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교수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

춘향가-염경애

[Five Pansori Stories-
Masters of Our Era]

Chunhyang-ga by
Yeom Gyeongae

8. 16. Sat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염경애의 김세종제 춘향가

염경애 명창은 남원에서 출생하였다. 조선 후기 8대 명창으로 꼽히는 염계달의 방계 후손으로, 친고모인 염금향으로부터 사사 받으며 판소리에 입문했다. 조상현에게 ‘강산제 춘향가·심청가’를 안숙선에게는 ‘수궁가’와 ‘적벽가’를 전수받았다. 2002년 제28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 부문 우승 당시 최연소 장원을 차지했으며, 참가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염경애 명창은 폭넓은 음역대와 강인한 통성, 그리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목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산제 춘향가’는 박유전이 창시한 소리제로 이면에 맞게 소리 구성이 잘 짜여져 있으며 웅장하면서도 고졸한 맛이 있다. 소리길을 통으로 옥여넣거나 힘껏 쥐어 짜내기에 힘 있는 남자 명창들이 주로 이 소리를 구사한다. 그러나 염경애 명창은 타고난 소리품으로 ‘강산제 춘향가’의 ‘소리 속의 소리’를 구현하므로 더욱 기대가 된다. 여기에 명고 이태백과 이상호가 장단을 맞춘다.

Gangsan-je Chunhyang-ga by Yeom Gyeongae

Master Yeom Gyeongae was born in Namwon. She is a descendant of Yeom Gyedal, one of the eight great pansori singe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began her pansori career under the guidance of her aunt, Yeom Geumhyang. She learned “Gangsan-je Chunhyang-ga and Simcheong-ga” from Jo Sanghyun, and “Sugung-ga” and “Jeokbyeok-ga” from An Suksun. In 2002, s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28th Jeonju Daesaseupnori Pansori Competition, becoming the youngest winner, which led to the policy-change in the competition’s eligibility criteria. She is renowned for her wide vocal range, powerful quality voice, and delicate emotional expression.

“Gangsan-je Chunhyang-ga” is a style by Park Yujeon, characterized by well-structured musical arrangements for appropriate depiction of text and by its grand as well as quaint charm. This style is typically performed by male performers who can forcefully push or squeeze their voice out. However, Master Yeom Gyeongae, with her talented vocal ability, is the one who is expected to realize the sonic essence of Gangsan-je Chunhyang-ga. Master Lee Taebaek will perform buk-accompaniment for her voice.

* 해설 김혜정 *



염경애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 제28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 KBS 국악대상 판소리 부문 수상
- 현) 국립국악원 부수석



고수 이태백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이수자
- 전주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 현) 목원대학교 공연콘텐츠학부 교수



고수 이상호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제12회 팔마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
- 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사 고법반 교수

[판소리 다섯바탕-라이징스타]
심청가-김주리
 [Five Pansori Stories-Rising Star]
Simcheong-ga by Kim Juri

8. 17. Sun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김주리의 강산제 심청가

김주리는 만 5세에 소리에 입문하였다. 8세의 어린 나이에 동편제 수궁가를 완창하고 10세에 수궁가와 심청가를 9시간 20분 동안 연창하여 기네스북에 올랐다.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JTBC 풍류대장 등 각종 방송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은 김주리는 우리 시대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절제된 표현과 단아한 가풍으로 유명한 강산제 <심청가>를 선보인다. 강산제는 박유전으로부터 전승되는 서편제의 유파로 계면조 창법을 주로 구사하며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화려하게 노래한다. 김주리 특유의 청아하고 섬세한 소리로 강산제의 품격 있는 멋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소리북에는 이우성 고수가 함께한다.

**Kim Juri's
 Gangsan-je Simcheong-ga**

Kim Juri began practicing pansori at her age of four. She performed the Dongpyeon-je style Sugung-ga at the age of eight, and at her age of ten, she performed Sugung-ga and Simcheong-ga for total 9 hours and 20 minutes, which went into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Kim Juri, who had renowned as a wonder child artist in her younger days, has grown into an outstanding performer, showcasing her diverse talents on various broadcasting stages. At the stage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she offers her Simcheong-ga performance of the Gangsan-je style that is characterized by its refined expression and elegant tune. Kim Juri's clear and delicate voice will show the stylish beauty of Gangsan-je. Percussionist Lee Wooseong will perform buk with her.

* 해설 송미경 *



김주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재학
- Guinness World Records(기네스북) 최연소 (만10세), 최장시간 판소리 연창 세계기록인중
-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김세종제 춘향가> 완창
- 202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학교 판소리 교수 역임



고수 이우성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 제3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고법 명고부 대상
- 제18회 박동진명창명고대회 판소리고법 일반부 장원
- 현) AUX 대표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Ode to Youth - Young Pansori

8. 13. Wed - 14. Thu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 해설 신은주 *

열정과 패기 넘치는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기 위해 해마다 공모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인의 젊은 소리꾼들이 2025 소리축제 무대에 오른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개성 넘치는 젊은 소리꾼들의 소리 한마당을 신명나게 즐겨보자!

Stages by Young Artists Filled with Passion and Energy

“Ode of Youth: Young Pansori,” an annual event that discovers talented young pansori performers and broadens the stage experience of the next generation of performers! This year, five young pansori performers who passed the highly competitive process will take the stage at the 2025 Sori Festival. Let us enjoy the lively performances of these talented, unique young performers!

황지영의 강산제 심청가 8/13 Wed 13:30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소리꾼 황지영이 들려줄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인 박유전 명창으로부터 전승된 소리로 정재근, 정응민, 성우향 명창 등으로 이어져 왔다. 동편제의 웅장함과 서편제의 애잔함이 어우러진 소리로 음악적 형식미가 뛰어나다. 또한 이면에 맞게 소리 구성이 잘 짜여 있으며 단정하고 절제된 소리가 특징이다. 고수에는 서울시무형유산 삼현육각 전수자 조봉국이 맡아 함께 무대에 오른다.



황지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발탈 이수자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 석사
- 판소리아자트 놀애크스 동인
- 제21회 인천국악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판소리 대상



고수 조봉국

- 서울시무형유산 삼현육각 전수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타악 전문사 수료
- 판소리 놀애크스 동인
- 제4회 청춘열전 출사표 금상 수상

류창선의 강도근제 흥보가 8/13 Wed 15:30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소리꾼 류창선이 선보이는 ‘강도근제 흥보가’는 송흥록 명창의 소리를 바탕으로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 강도근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갖고 있다. 동편제 특유의 강렬하고 힘찬 소리가 특징으로 극적인 전개와 시김새가 많으며 화려한 선율변화와 풍성한 소리가 돋보인다. 재담이 많고 해학성이 두드러진 만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고수에는 제41회 전국고수대회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광윤이 맡아 무대를 함께 꾸린다.



류창선

-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수료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금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 2021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 <류창선의 동편제 강도근바디 흥보가 완창>
- 전 강원예술고등학교 출강



고수 김광윤

-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 제7회 롯데장학재단 청춘열전 출사표 대상
-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part.4 OST 참여
- 2024 한복상점 HANBOK expo
- <이음, 리듬> 작,편곡

김미성의 김세종제 춘향가 8/13 Wed 17:30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수자 소리꾼 김미성이 선보이는 ‘김세종제 춘향가’는 김세종으로부터 이어지고 김찬업, 정응민 명창으로 이어져 전남 보성에 자리를 잡았으며, 다시 정권진, 성우향, 조상현 명창 등으로 이어진 소리다. 양반적 취향이 많이 가미되어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되며,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 또한 장단과 성음이 다채롭고 부침새와 시김새가 교묘한 것이 특징이다. 고수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최재영이 맡는다.



김미성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 재학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및 동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졸업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수자



고수 최재영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제12회 서편제 판소리-고법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 제19회 화순 전국국악대전 판소리고법 일반부 대상
- 제2회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판소리고법 일반부 대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김기진의 정광수제 수궁가 8/14 Thu 13:30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전수자 소리꾼 김기진이 펼치는 '정광수제 수궁가'는 동편제의 시조인 송흥록 명창으로부터 송우룡, 유성준, 정광수, 안숙선 명창으로 전승됐다. 힘 있는 통성을 바탕으로 한 우조 성음의 동편제 특징과 정교하고 화려하며 다양한 기교가 돋보이는 계면 성음의 서편제 특징이 어우러져 있다. 격식 있고 유려한 사설 표현이 돋보이며, 장단과 성음이 다채롭고 부침새와 시김새가 교묘한 것이 특징이다. 고수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 송대희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기진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석·박사 재학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수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
-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금상
-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문화체육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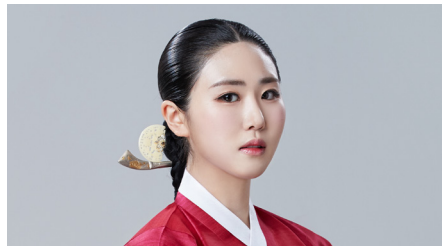


고수 송대희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
- 제22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 대회 명고부 대상 (국무총리상)
- 음악그룹 HUM 동인

이서희의 박봉술제 적벽가 8/14 Thu 15:30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소리꾼 이서희가 들려주는 '박봉술제 적벽가'는 동편 계열에 속하며 송만갑 명창의 바디를 이은 것으로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 김일구 명창으로 전승된 소리다. 푹 던지듯 놓는 소리가 많고 맺고 끊음이 간결하며,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와 섬세하고 화려한 장단이 특징이다. 또한, 우직하고 단단한 성음으로 구사하는 우조 위주의 당당하고 웅장한 멋이 일품이다. 고수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도경한이 맡아 장단을 맞춘다.



이서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가 졸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 제19회 완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
- 제19회 명창박록주 전국국악대전 일반부 최우수상
- 현)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고수 도경한

- 중앙대학교 국악관현악과 졸업
- 국가무형유산 제46회 피리정악및대취타 전수자
- 제1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고법부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인턴단원 역임
- 현)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산조의 밤]

이지영, 이용구

[Sanjo Night]

Lee Jiyeong and Lee Yongkoo

8. 15. Fri 16:3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 해설 윤종강 *

이지영, 이용구 명인의 깊이 있는 연주
즉흥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산조의 매력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대표하는 브랜딩 공연 '산조의 밤'은 독창성과 예술성을 지닌 산조의 음악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올해는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이지영 명인의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가 13년 만에 같은 무대에서 완성형으로 연주되며, 이용구 명인의 전주산류 단소 산조는 소리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단소 산조 전 바탕을 선보이는 무대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산조가 지닌 매력과 전통의 오롯함을 깊이 있게 느껴보고 싶다면 이 공연을 놓치지 말자!

Profound Performances of Masters

Lee Jiyeong and Lee Yongkoo

The charm of sanjo with its
Improvisational Uniqueness

The "Sanjo Night," a representative branded performances of Jeonju Int'l Sori Festival, offers a stage where audiences can experience the value of sanjo with its uniqueness and artistic excellence. This time, you can deeply appreciate sanjo performances by instrumentalists with solid skills and experience, each playing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이지영은 독창적 산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판소리는 물론 범패, 서도소리, 굿음악 등을 모두 섭렵하였다. 거기서 가야금산조에 적합한 가락을 발굴했고, 그것을 자신의 가야금 수법과 공력을 통해서 녹여냈다. 이지영 산조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이지영류 가야금산조는 ‘홀애비줄’로 시작한다. 가야금 12줄 중에서 8현에 해당한다. 이 줄은 가야금산조에서 12줄과 같은 음정의 줄이 없다. 지금의 모든 산조에서 이런 음정을 출발하는 산조는 이지영류 가야금산조가 유일하다. 이 산조는 전통적인 산조 질서와 미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지영류만의 독특한 성취가 있다. 산조가 전반적으로 이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전개하고 있지만, 가락과 장단이 변화하면서 매우 다채롭고 정감이 넘치는 정서를 드러낸다.

Lee Jiyeong's approach to sanjo differs from that of other folk music masters, as well as from that of Western music-based composers. In order to create her unique style of sanjo, she studied not only traditional pansori but also beompae (Buddhist music), Seodosori (folksongs from mid-western area of the peninsula), and gut (shamanic) music. From there, she discovered melodies suitable for her gayageum sanjo and incorporated them into her own piece through her techniques and skillfulness. Thereby, Lee Jiyeong sanjo achieves its unique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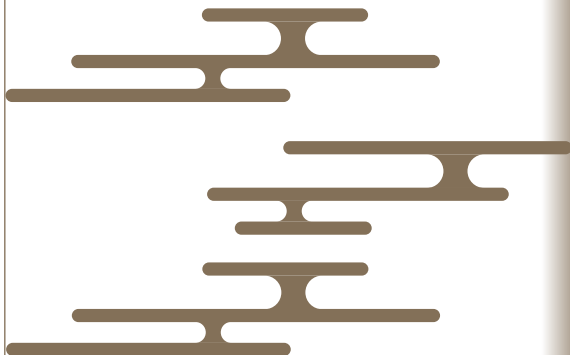
가야금 이지영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2020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 2025 관재국악상 수상
- 현) 서공철류가야금산조보존회 회장
김병호류가야금산조보존회 회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고수 윤호세

- 2023 사야국악상 수상
- 현) 전통예술집단 “더 굿” 대표
단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출강
숙명여자대학교 초빙대우 교수



전추산류 단조 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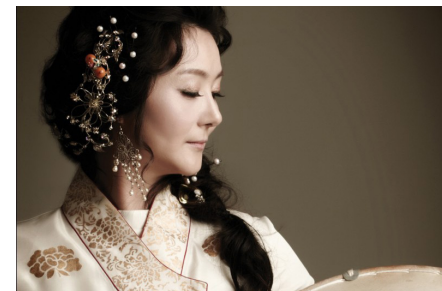
대금 산조와 단소 산조를 양수겸장(兩手兼將)하는 이용구 명인은 가히 죽신(竹神)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단소 산조 특유의 화려한 농음 체계를 구축해냈다. 기존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산조 특유의 혼드는 음, 흘러내는 음, 꺾는 음, 죄는 음 등이 이용구 명인의 단소를 통해서 다양하게 구사된다. 이 산조는 계면조 위주로 전개하는데 거기에 두 개의 계면조가 공존한다. C본청 계면조와 G본청 계면조가 서로 넘나들면서 단소 산조 특유의 묘한 매력을 전해준다. 이 산조의 장단 구성은 느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다. 산조의 말미는 대략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무장단으로 연주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중모리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용구 명인이 연주하는 전추산류 단소 산조는 ‘푸는 중모리’로 단정하면서도 세련되게 마무리된다.

Master Lee Yongkoo, who is skilled both in daegum and danso sanjo, has established his unique system of nongeum (tone-control), which makes his nickname of “Bamboo God” appropriate. Through his danso, he produces a variety of tones that were previously considered impossible in sanjo, such as shaken, flowing, bended, and squeezed so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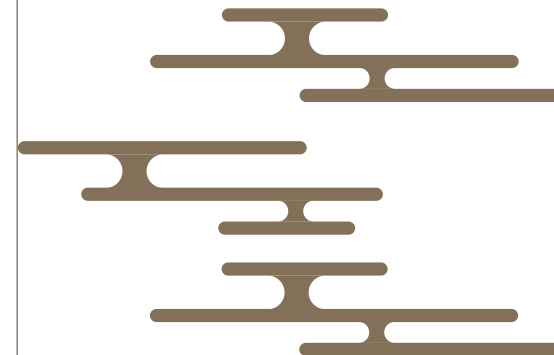
단소 이용구

-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이수자
- 제9회 국립국악원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대상
- 제1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악부 장원
- 현)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



고수 류경화

- 제1회 올해의 예술상 수상
-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역임
- 국립극장 여우락페스티벌 예술감독 역임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성악열전] 동희스님의 범패

[Vocal Virtuosi]
Venerable Donghee's
Beompae

8. 15. Fri 13:3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한국 불교음악의 독창성·예술성 간직한
성악곡 ‘범패’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인
‘동희스님’은 비구니 최초의 어산어장 스님이다.
어산(魚山)이란 범음범패를 총칭하는 말이자 재를
드린다는 의미이며, 어장(魚丈)은 범음범패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스님을 말한다. ‘동희스님’은
남성인 비구 중심의 어산에서 70여 년 동안
묵묵히 범패를 재장에 올려왔다. 이번 공연은
불교에 귀의한 구도자로서 또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영산재는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한
장면을 재현하는 의식인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음, 범패, 작법을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 수행과 교화의 의미를 담은 구도 행위라는
관점에서 경건하고도 우아한 소리와 몸짓을
가까이 접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Beompae”: Vocal Music that Shows
the Uniqueness and Artistry of Korean
Buddhist Music

Venerable Donghee, an instructor for successor training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eongsanjae, is the first female monk to attain the rank of “Eosaneojang.” “Eosan,” literally meaning “to perform ritual,” refers to Buddhist chants as a whole, and “eojang” denotes a monk who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chanting. For over 70 years, Venerable Donghee has performed beompae chanting at Eosan,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dominated by men. In the festival stage,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see her both as a Buddhist seeker and an artist.

Yeongsanjae is a ceremony that represents the scene of Buddha’s preaching *Beophwagyeong* (the Lotus Sutra) on the Vulture Peak. The festival stage will feature some important elements of chant, instrumental play, and movements included in Yeongsanjae. The stage will offer a precious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reverent and elegant sounds and bodily movements as part of truth-seeking practices that implies meditative and self-educating meanings.



범패 동희스님

-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특임교수
-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어장
- (사)진관사 국행수륙재보존회부설 수륙재학교 학장
- (사)진관사 국행수륙재 어장

진성스님, 범밀스님, 일구스님, 진용스님

백재화, 성예진, 장혜수, 차명희
문서주, 권영심, 이지현, 김지연, 김리혜

반주자

취타 조복현, 김성현, 장동민, 김현우
삼현육각 | 피리 이길영 장구 강민석
대금 김승우 아쟁 김현구



[성악열전] 조순자의 여창가곡

[Vocal Virtuosi]
Cho Sunja's Female Gagok

8. 16. Sat 13:3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절제와 느림의 미학이 담긴 가곡
여창가곡의 묘미와 정수를 선사

한국의 가곡은 수천년을 이어온 한국 전통 성악곡으로 국가무형유산이자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문인이나 선비 등 주로 지식층에서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향유되었던 ‘가곡(歌曲)’은 시조시를 관현 반주에 맞추어 남창, 여창, 남·여창으로 노래하는 성악곡이다. ‘여창가곡’은 가곡 중 가장 느린 곡인 우조 이삭대엽으로 시작해 점점 빨라지고 말이 잦아지는 농, 락, 편으로 이어진다.

영송당 조순자 명인은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로 소남 이주환, 이난향, 청운 홍원기 세 분을 사사했다. 최근 정간보로 제작된 최초의 가곡 총본인 ‘여창가곡 열여섯님’을 발간하며,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가객 조순자의 노래는 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맑고 고아한 성음으로 여창가곡의 정수를 담고 있어 감동이 더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창원의 가곡전수관 영송헌에서 수련한 율객이 관현반주를 더한다.



Gagok Imbued with the Beauty
of Moderation and Slowness The
Charming Essence of Female Gagok
Genre

Gagok is Korea's traditional vocal genre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It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cognized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0. Generally enjoyed by intellectuals as a means of spiritual self-education, gagok is a vocal music sung to the accompaniment of stringed instruments, with lyrics from *sijo* (a traditional form of poetry). It is divided into songs for female, male, and mixed voices. Female gagok begins with the slowest piece (*ujo isakdaeyeop*), and gradually becomes faster and more rhythmic in the later *nong*, *rak*, and *pyeon* sections.

Master Yeongsongdang Cho Soonja is a holder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agok. She studied gagok under the guidance of masters Lee Juhwan, Lee Nanhyang, and Chung Woon. Recently, she published the first complete collection of gagok in the *jeongganbo* notational system titled “The Sixteen Pieces of Female Gagok” for the promotion of the beauty of gagok and to contribute to the academia. The singing of the master, at the age of over 80, will feature her clear and elegant voice that captures the essence of female gagok, creating a deep emotional impact. The musicians trained at Yeongsongheon, the training-center of gagok located in Changwon, will perform instrumental accompaniment.



노래 조순자

-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 가곡관전수관장
- KBS 국악연구생 歌.舞.樂.理論을 이수
- 국립국악원 연구원
- KBS 국악대상 수상
-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 서훈
- 제29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노래 신용호, 이유나, 김참이

거문고 이임민 가야금 서은주 피리 박태영
대금 김동현 해금 이민영 장구 정동주

[성악열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Vocal Virtuosi]

Sunchang Nongyo
Geumgwadeulsori

8. 16. Sat 18: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농사일을 하며 들녘에서 불리워진 들노래
선조들의 삶에 녹아있는 귀한 소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대장마을 들녘에서 불리워진 농요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품앗이 농사일을 하면서 들노래를 부를 때 농사일을 거들며 귀동냥으로 이어받은 노래다. 근대 이후 기계화가 이루어진 농촌 현장에 대한 반성으로 삶 속에서 삶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농사 과정을 들소리로 복원하였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는 2002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19개 팀 경연에서 전북을 대표하여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고, 많은 노력 끝에 2005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물 품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김매기 소리들을 들려주며, 푸르른 들판에서 땀과 활기가 흐르는 선조들의 귀한 소리를 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들의 소리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농경을 경험한 중장년층부터 청소년까지 세대를 엮어주고 이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Farmers' Songs from the Field - A Valuable Sound that Reflects Human-ness

Nongyo (farmers' songs) sung in the fields of Daejang Village, Geumgwa-myeon, Sunchang-gun of the Jeonbuk State, wer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s children listened and learned while helping with farming labor during pumasi (communal farming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mechanization of rural areas in modern times, these songs were revived as a form of "deulsori," which is a restoration of farming process.

The "Sunchangnongyo Geumgwa Deulsori" won the Grand Prize at the 43rd Korean Folk Arts Festival in 2002, representing Jeonbuk State, and after then, it became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Jeonbuk State in 2005. At this festival stage, songs of carrying water, planting and transplanting rice, and weeding will be performed, bringing the precious sounds of our ancestors' sweat and vitality onto the stage. These sounds will bridge generations, connecting elderly people who experienced farming labor in Korea's rapidly changing society with teenagers, and thereby foster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m.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

회장 김봉호 부회장 윤오채, 정규상 사무국장 양걸희
감사 이정수, 설재건 상쇠 유은숙 수장고 강병식
징쇠 안종문 장고 설옥순 복쇠 김상모 영감 설동화
이수자 전선애, 윤영백, 김학춘, 박분주, 강귀순,
최애순, 심귀옥

일꾼 김수현, 설갑열, 설남수, 설양호, 양동열, 최순호,
강대순, 공순례, 김봉례, 김연순, 김오순, 김옥남,
양선자, 이명순, 주문자, 최순옥, 최정자, 김계순,
박덕순, 이현숙, 김주연, 최상일, 김진섭, 김태호,
권순자, 박길심, 심연옥, 유영자, 김옥순



[성악열전] 이춘희의 경기민요

[Vocal Virtuosi]
Lee Chunhee's
Gyeonggi Minyo

8. 17. Sun 13:3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경기민요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다양한 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경기민요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한때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중 하나인 경기민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르던 전문 노래꾼의 노래로 12잡가를
비롯하여 통속민요, 경기 잡가, 그리고 굿 노래가
있다. 한 자리에서 경기민요의 정수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일 것이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명인을 중심으로 강효주,
채수현이 다채로운 경기민요의 세계로 인도한다.

12잡가 중 집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한 장면에서
따왔으며, 선유가는 뱃놀이 노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에도 등재된 아리랑, 민요와 잡가의
사이 경기 잡가 중 하나인 금강산타령, 불교음악
중 가장 대중적인 노래 회심곡, 서울굿노래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등 현재 경기민요의 범주에
들어간 다양한 악곡을 선보인다.
긴 호흡으로 민중의 정서를 담은 노래에
명연주자의 경기선율이 함께하여 신명을 더한다.

A Special Stage Where the Essence of
Gyeonggi Folksongs Can be Explored
Experience of a variety of Minyo Pieces
All in one Place!

How far can the charm of Gyeonggi folk songs
extend? Once one of the most beloved songs,
Gyeonggi Province's minyo (folksong), sung by
professional singers centered in Seoul, includes
twelve jangga, tongsok minyo, gyeonggi jangga,
and gut-songs. It is a great fortune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Gyeonggi minyo
in a single place. Led by Master Lee Chunhee,
a holder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yeonggi minyo, Kang Hyojoo and
Chae Soohyun will bring the audience into the
colorful world of Gyeonggi minyo.

"Jipjangga," one among the twelve jangga
repertoires, is from a scene within the pansori
"Chunhyangga." "Seonyuga" is a boat song.
Additionally, the performance will feature
a variety of pieces currently categorized as
Gyeonggi minyo, including "Arirang," which is
list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eumgangsan Taryeong," one of the songs
between minyo and jangga, "Hoesimgok," the
most popular Buddhism-related song, "Seoul
Gunnorae," and "Changbu Taryeong," et cetera.
These songs, which convey the sentiments of
the common people through their leisurely
mood, will be performed with master
musicians' instrumental accompaniment,
adding to the joyfulness.



경기민요 이춘희

-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 조선일보 '방일영 국악대상' 수상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실연
- 현)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특임교수

경기민요 강효주, 채수현

해금 이동훈 피리 이호진 대금 김선호 장구 이민형

[디아스포라 포커스] 지순자의 신민요

[Diaspora Focus]
Ji Sunja's Sinminyo
(New Folksongs)

8. 16. Sat 20:00
인재고택 학인당 Hakindang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지영희·성금연 신민요, 그 맥을 잇는 지순자
그 시절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만나는 깊은
울림

지순자 명인은 신민요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음악적 미감을 간직하고, 부모로부터 직접 전해
받은 곡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그 맥을
이어왔다. 이번 무대는 그 원형을 넘어 당대의
감성과 선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시절의 향수를 되살리고자 한다.

공연은 총 9곡의 신민요로 연주된다. 1부는
지영희·성금연 명인에 의해 해방 이후 창작된
가야금 병창곡과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된
곡으로 구성되었다. 2부에는 일제강점기에
신민요 가수들에 의해 유행한 신민요 중 지영희
명인이 민속무용 음악에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시김새로 변모시킨 곡들이 연주된다.

악기 편성은 가야금(12현, 25현, 철가야금)에
바이올린, 피리, 생황, 퍼커션 등이 함께하여
새로운 신민요 연주가 가야금 병창 및 한양합주
형태로 연주된다. 해설은 신민요 전문 음악학자인
이소영 평론가가 말아 지순자 명인과의 대담을
통해 신민요의 역사적 의미와 곡에 대한 해설을
심도있게 풀어낸다.



New Folksongs of Ji Yeonghee and
Seong Geumyeon Handed down to
Ji Sunja

A Profound Resonance Where the
Sensibiliti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Meet

Master Ji Sunja has preserved the historical
and musical value of sinminyo, consistently
performing those songs passed down from
her parents on stage. The festival performance
aims to go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original form, reinterpreting the sensibilities
and melodies of the era in a modern way to
revive the nostalgia of that past time.

The performance consists of nine new
folksong pieces – The first section features
pieces composed after liberation by master
Ji Yeonghee and Seong Geumyeon, including
gayageum byeongchang (singing with
instrument playing) and pieces used for dance
accompaniment. The second section includes
sinminyo pieces that were popular among
professional sing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n transformed into
traditional folk dance music using traditional
rhythmic patterns by master Ji Yeonghee.

The stage will consist of a gayageum (12-string,
25-string, and iron-stringed gayageum), violin,
piri, saenghwang, percussion. Sinminyo pieces
will performed in the form of gayageum
byeongchang and hanyanghapju (ensemble
with Korean and Western instruments). In
addition, the commentary will be provided
by Lee Soyeong, a music critic specializing
in sinminyo. She will explo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inminyo through the
conversation with master Ji Sunja, and provide
insightful explanations of the performed pieces.

* 해설 이소영 *



가야금 지순자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승교육사 역임
- 1974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전수자
평가발표회 대상
- 제1회 대한민국예술상 대상
- 1964 KBS교향악단 김희조 지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협연
- 현) 지영희민속음악 연구회 회장
수임당 가락타기 대표

바이올린 허희정

장단 장재환

피리 안은경

가야금 병창 박순아, 최스칼렛, 임경미

자문 이소영

[디아스포라 포커스] 윤은화의 양금로드

[Diaspora Focus]
Yoon Eunhwa's
Yanggeum Road

8. 17. Sun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시대와 예술, 문화를 넘나든 양금로드
고대 페르시아부터 한국에 이르는 긴 여정

‘양금(洋琴)’은 한국의 전통 악기 중 유일한 줄때림[打絃] 악기이다. 사다리꼴의 몸통에 쇠줄을 올려 대나무로 만든 채로 친다. ‘서양에서 온 금’이라는 뜻으로 서양금, 구라철사금이라 불렀다. 그 이름에서부터의 고된 여정이 느껴지듯 양금은 고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서 시작된 악기이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 전해져 덜시머(Dulcimer)가 되었고, 18세기경 중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 이르렀다. 이번 공연은 양금이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이란 산투루의 고요한 울림에서, 유럽 덜시머의 정열, 중국 양친의 화려함을 거쳐 한국 양금의 궁중음악, 산조, 민요, 굿,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빚어낸 소리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독보적인 양금 연주자 윤은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양금 로드’는 소리의 공유를 넘어 역사와 감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깊은 음악의 여정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Yanggeum's Road Crossing Periodical,
Artistic, and Cultural Borders

Yanggeum is the only struck string instrument amo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Metal strings are installed on the ladder-shaped body part and struck with bamboo sticks. Its name means “the instrument from the West” and has been called “seoyang-geum (lit. West-string)” or “guracheolsageum (iron-string from Europe).” As its name suggests, originating in ancient Persia, yanggeum became introduced to Europe during the period of Crusades and evolved into dulcimer, and became introduced to Korea via China in the 18th century. The festival performance will present the instrument's long journey on the stage.

Let us together trace yanggeum's sonic adventure across time and cultural boundaries, from the tranquility of Iranian santur to the passion of European dulcimer, to the splendor of Chinese yangqin, and to Korean yanggeum in a variety genres including court music, sanjo, folk song, gut (shamanic music), and contemporary genres. “Yanggeum Road” with Yoon Eunhwa, the unique yanggeum instrumentalist, will bring you to a musical journey that connects histories and sentiments,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양금 윤은화

산투르 마수드 샤마이즈아데 Massoud Shamaeezadeh
덜시머 마얀키 Ma Yanki

양친 [중국 중앙음악학원 모리화 양금 연주단]
음악감독 류웨닝(Liu Yuening)
펑루위엔 Féng Rǔyuàn 순이량 Sūn Yiliáng
저우이쉬안 Zhōu Yíxuān 쉬징위엔 Xú Jìngyuán
둥이쉬안 Dōng Yíxuān 천후이신 Chén Huìxīn
왕신허 Wáng Xīnhé

양금 [한국양금협회]
임은별, 조훈화, 박주화, 김채운, 김수연
최수정, 김윤희, 구슬아, 손은주, 강지현
신자빈, 고현영, 정주리, 임지영, 권영주
박희수, 안진, Guest 이창현

 한국양금협회
KOREA YANGGEUM ASSOCIATION



[강릉단오제 × 전주세계소리축제] 푸너리

[Gangneung Danoje ×
Jeonju Int'l Sori Festival]
Puneori

8. 15. Fri 18: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연희 김운석, 이견환, 정지용, 박순여, 박혜미
이혜미, 김민석, 원현식, 김영우

강릉단오굿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9인의 연희자
‘가무악회’로 소망과 축원을 선사하다!

전통연희집단 ‘푸너리’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무격부 전승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강릉단오굿뿐만 아니라 한반도 여러 지역의 연희 형태 및 요소들을 재료로 삼아 다양한 창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에 뿌리를 둔 현대적 미감의 무대를 만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선보일 <구룡이 나르샤>는 수년째 푸너리가 선보이고 있는 대표 작품 중 하나이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일마다 천복이시니’라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가져온 제목의 이 작품에서 9인의 연희자는 강릉단오굿을 재해석한 형태의 연희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는 일마다 복이 오는’ 소망과 축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Sharing Wishes and Prayers through Singing, Dancing, and Play by Nine Performers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Gangneung Dano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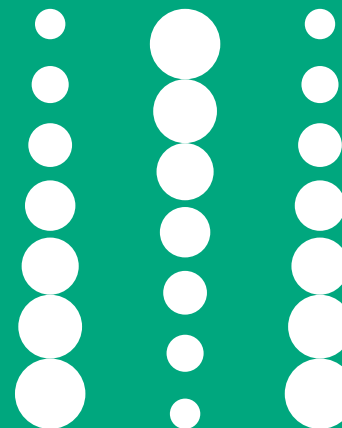
“Puneori” is an traditional yeonheui troupe formed by the successors of mugyeokbu (shamanic performance) section of Gangneung Danoje, which is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ine Dragons Flying,” which will be presented at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that Puneori has been presenting for several years. The title is from a line of “Yongbieoecheonga” (Song of Dragons Flying in Heaven) writte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ra, that is, “the six dragons of the East ascend and every deed is blessed by heaven.” The nine performers at the stage, reinterpreting the Gangneung Danoje, aim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life and convey the hope and blessing that “every deed is done with good fortune.”

 새강릉단오제위원회

창작& 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Creation & Contemporary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들과 공연들을 담아내는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섹션에서는 소리축제의 대표 마티네 프로그램 <전주의 아침>을 만날 수 있다. 훈, 통소, 생활이라는 악기의 새 산조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김일규류 아쟁산조를 바이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풍성한 저음과 예리한 고음이 돋보이는 철현금 연주도 기대를 모은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전통 예술가들의 멋진 연주를 고조시킨 한옥에 앉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말자! 피리밴드 저클, 이날치, 서도밴드, 송소희 등 여름밤 야외무대에서 축제 현장을 시원하게 해줄 라인업도 꼭 체크해야 할 공연! 쇼케이스 공연으로 펼쳐지는 <소리프론티어>는 어떤 팀이 최종 1개팀으로 선정되어 해외 쇼케이스 무대로 진출하게될지 주목해 보길 바란다.

The “Creation & Contemporary” section showcases artists and performances that reflect the times and thereby create new traditions. In this section, audiences can enjoy the representative matinee program of the Sori Festival, <Morning in Jeonju>. The section also features new sanjo pieces performed with hun, tungso, and saenghwang, as well as a violin rendition of Kim Ilgu style ajaeng sanjo. The rich bass and sharp treble of cheolhyeongeum performance are also highly anticipated. Do not miss this special opportunity to enjoy the wonderful performances of traditional artists expanding their unique artistic worlds while seated in the tranquil atmospher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Check the performances by the JC Crew, LEENALCHI, sEODo BAND, and Song Sohee, who will cool down the summer night’s outdoor stage at the festival! Also keep an eye on the competition, “Sori Frontier,” to see which team will take first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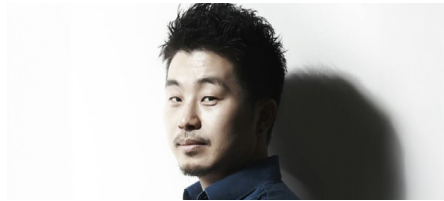


[전주의 아침] 훈, 통소, 생황산조

[Morning of Jeonju]
Hun, Tungso, and
Saenghwang Sanjo

8. 14. Thu 10:30
완주 아원 Wanju Awon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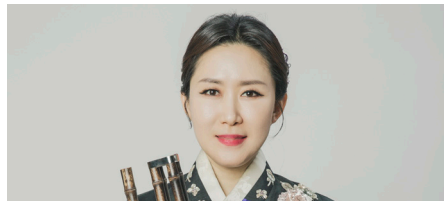
* 해설 김희선 *



훈 송경근



통소 김동근



생황 김효영

고수 강선일, 최영석, 황민왕

이색 악기 훈 송경근, 통소 김동근, 생황 김효영
산조라는 생명을 얻은 세 악기의 새 산조

허튼가락, 산조(散調)는 흩어진 가락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악곡을 구성한 것이다. 19세기 이후에 가야금을 필두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20세기 초반 SP레코드에서 보여지는 여러 형태의 산조들은 당시 명인들이 얼마나 산조라는 장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명인의 바운더리를 기반으로 이리저리 붙이고 가르고 음악적 상상력을 동원해 산조를 만들었다. 산조의 생명이 움트고 피워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산조는 지켜내야 할 무언가로 치부되었고, 단단해지되 유연하지 못했다. 최근 새로운 악기에 산조라는 생명을 불어넣은 이들이 있다. 훈 산조에 송경근, 통소산조에 김동근, 생황 산조에 김효영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 악기의 새 산조를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행운이 바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있다. 주변의 악기라 치부되었던 훈, 통소, 생황의 악기 구조에 맞게 가락이 보태지고 구성되었다. 여기에 관객들의 추임새가 빠질 수 없지 않은가. 고수에는 명고 강선일, 최영석, 황민왕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Song gyeonggeun's Hun,
Kim Donggeun's Tungso,
and Kim Hyoyeong's Saenghwang
New Sanjo Pieces Attempted through
Three Instruments**

Recently, there are those who have breathed new life into traditional instruments through sanjo – Song Gyeonggeun (Hun Sanjo), Kim Donggeun (Tungso Sanjo), and Kim Hyoyeong (Saenghwang Sanjo). The melodies have been added and restructured to suit the unique structures of these instruments, which were once considered “supporting” ones. Of course, the audience's exclamation will be added to the sanjo performance. Master percussionists Kang Seonil, Choi Yeongseok, and Hwang Minwang will perform on stage with them.

[전주의 아침] 김일구류 바이올린 산조

[Morning of Jeonju]
Kim Ilgu Style Violin Sanjo

8. 15. Fri 10:30
인재고택 학인당 Hakindang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 해설 김희선 *



아쟁 김일구



바이올린 박소현

아쟁 조성재
가야금 송승민
고수 정준호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김일구류 아쟁산조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현존하는 아쟁산조 중에서 곡의 짜임새가 독특하고 멋스러운 곡으로 꼽힌다. 특유의 판소리적 요소와 변화무쌍한 음색의 조화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선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편제의 대표적인 꽃꽂함과 섬세함을 두루 표현한 가락들이 매력적인 산조이다. 또한 각 장단별로 다양한 조(Key) 변화를 통해 긴장과 이완, 맺고 풀음, 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잉어걸이 가락이 일품이다.

2025 소리축제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이자, 아쟁·가야금 등 한국 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김일구 명인과 그의 수하에서 아쟁산조를 수학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소현이 무대에 오른다. 그녀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통과 현대, 장르 간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일구류 아쟁산조의 구성미를 바이올린으로 재해석한 ‘김일구류 바이올린 산조’를 비롯해, 김일구 명인의 아쟁 즉흥 산조, 아쟁과 가야금이 함께 어우러지는 병주까지 만나볼 수 있다.

**Kim Ilgu Style Ajaeng Sanjo Performed
with Violin**

At the 2025 Sori Festival, a special performance of Kim Ilgu style sanjo played by the violin will be staged. Violinist Park Sohyeon studied ajaeng sanjo under the renowned master Kim Ilgu for several years, and has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genres. This stage will showcase how those possibilities can be expressed. Audiences also will be able to enjoy Kim Ilgu's improvisational ajaeng sanjo as well as Kim Ilgu style ajaeng and gayageum sanjo byeonju (duo performance between two instruments).

[전주의 아침] 류경화의 철현금

[Morning of Jeonju]
Ryu Gyeonghwa's
Cheolhyeongeum

8. 17. Sun 10:30
인재고택 학인당 Hakindang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철현금 류경화

고수 및 사운드디자인 이우주

독보적인 연주자 류경화의 철현금 연주
본향의 음악과 확장된 영역의 동시대적 융합

전통음악의 현장에서 독자적인 소리를 지켜온 철현금은 거문고와 비슷한 생김새로 8개의 쇠줄을 술대로 튕기거나 뜯어 연주하는 악기다. 풍성한 저음과 예리한 고음이 돋보이는 철현금, 이번 공연은 그러한 철현금 고유의 전통적 주법과 음색을 고악기를 통해 그 본향의 빛깔로 선보인다. 그리고 오늘의 감각과 경계 없는 창작방식을 통해 새로운 땅으로 뻗어나가는 철현금의 음악적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한다. 낯설지만 낯익은, 새로운 듯 익숙한 소리 본향의 정서와 현대적 사유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감상해보길 바란다.

**Cheolhyeongeum Performance by
Unique Instrumentalist Ryu Gyeonghwa
Fusion in a Contemporary Style between
the Music of the Origin and its Expanded
Territories**

Cheolhyeongeum, a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resembling geomungo, has preserved its unique sound in the field of traditional music. It features eight metal strings plucked or struck with a stick, and is known for its rich bass and sharp treble. This performance will showcase its traditional playing techniques and timbre, revealing the authentic essence of the instrument. Additionally, the performance explores the diasporic musical journey of the instrument, showing the expanding process of it into new territories through boundary-breaking creative approaches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a stage in which its unfamiliar yet familiar sounds, blending its originality with modern consideration, create a harmonious performance.

피리밴드 저클

JC Crew

8. 15. Fri 19: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전통 관악기의 매력을 호기롭고 익살스럽게,
저클만의 음악으로!

피리, 밴드, 호기로운 여기에 악동이라는 수식어까지 더해지면 ‘피리밴드 저클(JC Crew)’이 된다. 2022년 국악방송과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롯데장학재단 주최 ‘청춘열전 출사표’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저클은 남기문, 오영빈, 김유원, 이안, 윤명식, 김진규, 이승민, 김병철 개성 넘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 기악의 앙상블을 표방하면서, 향피리와 저피리, 태평소 등 한반도 전통 관악기의 장점과 특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이번 공연은 전통 민요와 동요, 구전 설화 및 놀이 등의 익숙한 일상 소재에 기반하여 창작한 ‘착하게 익살스러운’ 저클만의 음악들로 꾸려진다. 안온한 동심과 웃음의 세계로 모든 세대의 관객들을 안내하면서, 친숙한 듯 낯선 우리 관악기들의 독특한 매력을 따로 또 같이 맛볼 수 있는 무대이다.



**The Charm of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through Jeokeul's Cool and
Witty Sound!**

Piri, band, wittiness, mischievousness – all these together depict the group of “JC Crew.” JC Crew, the group that won awards at the “21st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by the Gugak Broadcasting System and the “Kcomfest” hosted by the Lotte Scholarship Foundation, is composed of members with unique personalities, including Nam Kimoon, Oh Yeongbin, Kim Yuwon, Lee An, Yoon Myeongsik, Kim Jingyu, Lee Seungmin, and Kim Byeongcheol. While aiming for an ensemble of wind instruments, the group is exploring various possibilities that maximize the strength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wind instruments including hyangpiri, jeopiri, taepyeongso, et cetera. The festival performance consists of various “playful and witty” pieces composed based on familiar everyday themes from traditional folksongs, children’s songs, tales and games.

이날치 LEENALCHI

8. 15. Fri 21: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독보적인 음악 색깔, 독특한 그루브에
똘똘 두똘똘 신나는 무대

‘얼터너티브 팝 밴드’를 표방하는 ‘이날치’는 2019년 결성 후 국내외를 넘나들며 창작과 연행 양면으로 부지런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협업한 <범 내려온다>가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대표적인 축제의 다양한 무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고, 드라마 음악과 더불어 자신들만의 음악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범 내려온다>,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호랑이 뒷다리> 등 정규 1집 <수궁가>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드라마 정년이 OST에 실린 <새타령>과 최근 발표곡까지를 감상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음악적 자장을 넓혀가고 있는 밴드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한편,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날치’만의 독특한 그루브를 만끽하며 함께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Uniqueness in Color, Distinctiveness in
Groove, and Excitement in Performance

“LEENALCHI,” who defines themselves an alternative pop band,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nce its formation in 2019, diligently pursuing both creative and performative works. Their collaboration with the Ambiguous Dance Company on “Tiger is Coming” received global attention in 2020 as part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Feel the Rhythm of Korea” campaign. They have participated in various festival stag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are also pioneering their own unique sounds in commercial and drama music fields. At this year’s Sori Festival stage, audiences can enjoy their repertoire centered on songs from the band’s first album <Sugung-ga>, including “Tiger is Coming,” “Crying Softshell Turtle,” and “Tiger’s Third Leg,” as well as their latest release including “Saetaryeong” which was inserted in the drama <Jeongnyeoni>.

서도밴드 sEODo BAND

8. 16. Sat 21: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전통음악과 팝 스타일을 버무려 감각적인
‘퓨전’으로 빚어낸 신선한 무대

‘서도밴드’는 2020년대 매스미디어 안팎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크로스오버 앙상블 중 하나다. 2018년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첫선을 보였고, 2021년 JTBC ‘풍류대장’ 우승 이후 KBS ‘불후의 명곡’을 비롯해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자신들의 음악을 ‘조선팝(CHOSUN POP)’으로 규정하며 전통음악 요소와 서구 밴드팝 스타일을 버무려겠다는 지향을 표현해온 이들은 자기규정에 걸맞게 한반도 전통 창법, 소재, 레퍼토리를 양악기 기반의 밴드 포맷 안에서 녹여내며 밴드 특유의 색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퓨전’의 역사 속 의미있는 한 지점을 보여준다. 소리축제에서의 공연은 그러한 지향을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 및 스펙트럼을 통해 내보이는 젊고 독특한 에너지와의 만남이 될 것이다.



Freshness through the Blending
Traditional and Pop Genres into a
Sensuous Fusion style

“sEODo BAND” is one of the most actively-appearing young crossover ensembles in the mass mediascape in the 2020s. The band debuted in 2018 through the “21c Korean Music Project,” and won the first place at JTBC’s TV program “Pungnyu Daejang” in 2021. Since then, the band has been performing not only on TV programs such as KBS “Immortal Songs” but also in other kinds of performances. Defining their music under the concept of “CHOSUN POP,” the band has manifested that the band pursue to blend traditional musical elements with Western band pop styles. The band has been creating a unique band sound by incorporating traditional Korean vocal techniques, themes, and repertoire into a Western-style band format, which shows a phase in the history of “fusion” music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performance at the Sori Festival will be a confrontation to the young and unique energy filled with diverse musical ideas and spectra.

송소희

Song Sohee

8. 17. Sun 20: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전통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현대음악 싱어송라이터 송소희

송소희는 어린 나이부터 경기민요 소리가로서 단단하고 꾸준하게 음악적 활동을 이어왔다. ‘시조’가 그 첫걸음이 되어 ‘경기민요’를 전공으로 꾸준히 공부하였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무대도 선보이는 등 독보적인 경기민요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이후 서양음악 공부에도 매진, 새로운 음악적 고민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직접 작사·작곡, 편곡한 현대음악 <구름곳 여행 : Journey to Utopia>(2022년), 싱글 <Infodemics>(2023년), 싱글 <세상은 요지경(Asurajang)>(2023년)을 차례로 발매, 가장 최근에는 총 4개 자작곡이 수록된 EP <공중무용>(2024년)과 싱글 <Not a Dream>(2025년)을 발매하면서 ‘현대음악 싱어송라이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송소희의 음악 세계를 만나보길 바란다.



A Singer-songwriter who Expands Traditional Music in Various Ways

Song Sohee has been pursuing her musical career as a Gyeonggi minyo (folksongs from the Gyeonggi Province) singer from her younger years. After learning “Sijo,” she practiced Gyeonggiminryo, and gained widespread public attention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She has since grown into a unique Gyeonggi minyo artist, performing on international stages that represent Korea. She then dedicated herself to studying Western music as well, pursuing continuous musical exploration to create her own unique sound. She has released the contemporary music piece <Cloud-cape Journey: Journey to Utopia> (2022), the single <Infodemics> (2023), and the single *Asurajang* (2023). Most recently, she released the EP <Aerial Dance> (2024) that includes four self-composed tracks and the single *Not a Dream* (2025) which clearly showed her identity as “a contemporary singer-songwriter” to the public.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he boundless potential of her musical world at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소리프론티어

Sori Frontier

8. 13. Wed - 14. Thu
전체관람가 All | 무료 Free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

‘소리프론티어’는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소리축제의 대표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총 43개 팀을 선정해 말레이시아 페낭 재즈페스티벌, 일본 스키야키 미츠 더 월드 등 해외 주요 무대에 소개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의 전통 장르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내 유일의 전통음악 유통 플랫폼 <소리 넥스트>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소리프론티어’는 신진 아티스트 발굴을 넘어 창작자와 음악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음악집단 소옥’, ‘시나비’, ‘공상’, ‘조선아’는 소리프론티어 공모를 통해 2차 실연 심사까지 거쳐 선정된 팀으로, 소리축제 기간인 8월 13일(수)과 14일(목) 중에 <소리 넥스트>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올해 하반기에 해외 쇼케이스 무대를 갖게 된다. 최종 어떤 팀이 선정될지 끝까지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This year’s Jeonju Int’l Sori Festival has been chosen as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genre festival by the “Genre-Specific Market Hub Support Projec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In this context, the festival will launch <SORI NEXT>, the only traditional music distribution platform in Korea. Through this new attempt, “Sori Frontier” aims to go beyond discovering new artists and serve as a platform connecting artists with the music market.

“Korean Music Group SOAK,” “SINAVI,” “Gong-Sang,” and “Jo Seon-ah” are the selected teams by the Sound Frontier competition, having passed the second round (live performances). They will perform on the stage at the <SORI NEXT> showcase during the Sori Festival period: on August 13 (Wed) and 14 (Thu). One team selected through expert evaluations will have an international showcase later this year. Let us keep attention to see which team will be chosen in the end.

조선아

Jo Seon-ah

8. 13. Wed 13:30

우진문화공간



‘조선아’는 가야금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술을 익힌 연주자이자 창작자다. 흐르고, 타고, 담고, 통과하는 몸이 되어 움직임과 소리의 호흡으로 대안 공간을 만들며, 자연을 주제로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생태에 대한 작업의 방법론으로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필드 레코딩을 사용하며, 2023 디지털 EP [eco-echo]를 발매했다. 2024 아라코청년예술가도약지원에 선정되어 <비성의 무초>를 기획, 연출, 연주, 사운드 제작하였으며, 공동창작집단 연희집단 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비성의 무초>는 ‘내 몸이 대안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영산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Jo Seon-ah” is a performer and creator who has mastered the art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gayageum. Through movements that flow, play, hold, and pass through the body, she creates alternative spaces with the breath of sound and movement, crafting music and performances centered on the theme of nature.

공상

Gong-sang

8. 13. Wed. 14:20

우진문화공간



‘공상’은 예컨대 비현실적·쓸모없는·의미로 효율성이 없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하지만, 이러한 공상은 종종 예술가의 창조력 원천이 되기도 한다. 창작자 강태훈은 늘 자유를 누리는 예술가를 꿈꾸며 중독적인 공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장르나 장비에 얽매이지 않고 떠오르는 것들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 모든 것은 <공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언제나 거문고였다. 강태훈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하기 위해 공상하고, 이 모든 감각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공간에서 공간과 감각을 오가며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음악들을 선보이고자 한다.

“Gongsang (imagination)” is commonly used to describe something about unrealistic, useless, or inefficient. However, this often serves as a source of creativity for artists. Creator Kang Taehoon dreams of being an artist who enjoys freedom, seeking to realize his addictive fantasies without being bound by any forms of genre or tool.

우리음악집단 소옥

Korean Music Group SOAK

8. 14. Thu 16:30

더뮤지션



‘우리음악집단 소옥’은 “음악을 흘러 사람을 본다”라는 좌우명 아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음악을 도모하는 ‘본질을 잃지 않는 대중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팀이다.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전통의 소리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계승하는 것이고, ‘대중적임’은 지금의 우리가 본질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부터 이어온 소리를 마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음악으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일, 그리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름을 지우지 않고 어우러지는 소옥의 음악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연을 소리로 드러낸다.

“Korean Music Group SOAK” is a group that aims to create “popular music that does not lose its essence” by blending traditional base with modern music, under the motto “Seeing people through music.” “Not losing the essence” means preserving and passing on their identity embedded in traditional sounds, while being “popular” refers to the way they interpret and express the essence in their todayness.

시나비

SINAVI

8. 14. Thu 21:00

더뮤지션



밴드 ‘시나비’는 2021년 결성된 팀으로 국악기 소리를 기반으로 록, 앰비언트, 컨템포러리 등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드라마틱하고 몰입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밴드다. ‘시나비’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정의 흐름을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익숙한 구조를 따르기보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정서적 연결을 추구하며,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기의 고유 음색과 서양음악의 화성과 장르를 조합하여 락킹하고 컨템포러리한 모던한 사운드로 에너지감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The band “SINAVI” is a crossover band formed in 2021 that blends the sounds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with modern genres such as rock, ambient, and contemporary to create dramatic and absorbing music. SINAVI's music transcends th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 and todayness, East and West, and narratively unfolds the flow of emotions.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 전주세계소리축제] SORI UP! JUMF NIGHT SORI UP! JUMF NIGHT

8. 15. Fri 22:30

남부시장 모이장 Moijang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 2025 소리축제·점프 유료티켓 소지자 무료입장

* 티켓은 현장 구매만 가능

축제가 끝난 후 또 다른 축제가 이어진다! 젊음의 응축된 에너지를 업!

전북을 대표하는 두 축제,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함께 특별한 애프터 파티를 연다. 8월 15일
불금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음악으로 이어지는 신나는 파티! 축제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흥과 넘치는 에너지는
애프터 파티에서 다양한 음악과 함께 마음껏
즐거보길 바란다. 페기굿, 김뜻돌, 세이수미,
불고기디스코, 라이언오슬링(VJ)을 비롯해 지난해
소리축제 무대에 올랐던 타이거디스코, 그리고
소리축제의 국악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인 ‘2024
소리프론티어’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삼산이
시원한 여름밤을 선물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속가능센터



After the Festival Ends, Another Festival Begins! Boost your Energy of Youth!

Two of Jeonbuk State's most representative
festivals, the 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
and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are together
hosting a special after-party. On August 15th,
starting at 9 PM on a Friday night and running
until 3:30 AM the next morning, participants
can enjoy a thrilling party filled with music. The
festival may have ended, but the excitement and
energy continue at the after-party,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music. Featuring Peggy
Good, Kim Ddeutdol, Say Sue Me, Bulgogi Disco,
Ryan Ohslings (VJ), and last year's Sori Festival
performers Tiger Disco, and Samsan, the winner
of the Sori Festival's traditional music musician
discovery project, "2024 Sori Frontier," this
event promises to deliver a cool summer night.

클래식& 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클래식&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섹션에서는 전북CBS와 공동 기획한
<손열음&고잉홈프로젝트>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7년 만에 전주를 찾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고잉홈프로젝트’의 만남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연 중 하나다.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과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뱅자맹 무세’는 최고
수준의 연주와 목소리의 어우러짐으로 한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또한 연주자 개인의 자유로운
연주가 살아있는 개성 있고 독창적인 한국형 클래식
양상들을 선보일 <자연소 프로젝트>는 마티네
공연으로 전통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The “Classical & Popular” section will feature
a performance of <Son Yeol-eum & Going
Home Project> coorganized with Jeonbuk
CBS. Pianist Son Yeol-eum, who is returning to
Jeonju after seven years, and the "Going Home
Project" that consists of members of world-
renowned orchestras meets on the festival
stage that is highly anticipated. Jazz vocalist
Na Yoonseon and French pianist Benjamin
Moussay will deliver a romantic summer
night with their harmonious blend of top-
notch performances and voices. Additionally,
the “Jayeonso Project” presents a unique and
innovative Korean-style classical ensemble,
where each musician's individuality shines.
This matinee performance will take place in
a unique atmospher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전북CBS×전주세계소리축제]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Jeonbuk CB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Son Yeoleum &
Going Home Project

8. 16. Sat 16: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70,000 S 50,000 A 30,000

PROGRAM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단조, 작품번호 35 (23분)

D.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in c minor, Op. 35

I. Allegro Moderato

II. Lento

III. Moderato

IV. Allegro con brio

INTERMISSION (15분)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45분)

A. Dvořák: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I. Adagio-Allegro Molto

II. Largo

III. Scherzo. Molto Vivace

IV. Allegro Con Fuoco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하는 고잉홈프로젝트

전북CBS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한 공연이 2025 소리축제
무대에 오른다.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팀 '고잉홈프로젝트'와 새로운 예술적 영역에
대한 도전을 아끼지 않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만남! 자신들의 음악 언어를 갖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
소리축제 무대를 꾸민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더욱 특별하다. 올해 소리축제의 키워드인
디아스포라와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함께이면서도 각자가 빛나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선보이는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Going Home Project with Pianist Son Yeoleum

A special stage co-organized by Jeonbuk CBS
and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ill
visit the festival. The "Going Home Project,"
formed by renowned musicians from various
orchestras around the world, and pianist Son
Yeoleum, who has never hesitated enacting
new artistic journeys, collaborate together for
creating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a moving orchestral performance
that brings respective artists together through
music, shining them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at the same time.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전북CBS



피아노 손열음

손열음은 201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 연주상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런던 심포니, BBC 필하모닉, BBC
스코티쉬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스페인
국립 방송 교향악단(RTVE 심포니),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바젤 심포니, 로테르담 필하모닉, 헤이그
필하모닉, 앤트워프 심포니,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슬로 필하모닉,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바르샤바 필하모닉,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악단들과 뉴욕 필하모닉, 시애틀 심포니,
디트로이트 심포니 등 북미의 악단들, 시드니 심포니,
멜버른 심포니, 오클랜드 심포니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악단들, NHK 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도쿄
메트로폴리탄, 대만 국립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 등 아시아의 악단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악단들과 협연하였다.

2005년 제1회 금호음악인상, 2013년 제1회
SK G.rium 아티스트상, 2019년 제10회 흥진기
창조인상, 2022년 제3회 포니정 영리더상, 2024년
제13회 대원음악상 대상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중앙일보의 주말 에디션 중앙선데이의 최연소
칼럼니스트로서 만 6년간 매달 기고해온 칼럼을
출간,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2022년부터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음악가들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음악가들을
결집한 오케스트라 고잉홈프로젝트의 설립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다.



고잉홈프로젝트

고잉홈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음악가들과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삼는
음악가들이 모여 만든 악단이다. 2022년 여름,
창단 연주에서 '봄의 제전'을 연주하고, 악단의
주자들이 협연자가 되는 기악갈라콘서트 <볼레로>
등 총천연색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데뷔했다.
이듬해 정기연주회 <신(新)세계>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화제를 모았고, 그해 12월을 시작으로
1년간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아홉 곡과 서곡
열두 곡, 전곡을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서곡
전곡 시리즈>를 성료하였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잉홈아카데미를 출범하고, 신촌 세브란스,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코엑스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인천공항,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등 찾아가는 음악회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주의 아침] 자연소 프로젝트

[Morning of Jeonju]
Jayeonso Project

8. 16. Sat 10:30
인재고택 학인당 Hakindang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전통 한옥에서 듣는 개성있고 독창적인
한국형 클래식 앙상블

‘자연소’는 ‘자유로운 음악연주소’의 줄임말로 바이올리니스트 심정은을 대표로 하는 연주가 중심의 프로젝트성 단체이며, 매 프로젝트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굴지의 음악인들로 구성된다. 내면의 자연스러움을 통해 발휘되는 개개인의 독창성을 존중하며, 획일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유로운 연주의 예술적 가치를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는 클래식으로 '영산회상'이 연주되며, 이 시대 우리 음악이 탄생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심정은을 중심으로 실력파 연주자들이 한국형 클래식 앙상블의 웅장하고도 섬세하며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한다. 특히, 전통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인재고택 학인당에서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색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A Unique Classic Ensemble with Originality Experienced in a Traditional- style House

“Jayeonso,” an abbreviation for “Venue for Free Music Performance,” is a project centered around violinist Sim Jeongeun. Each project event is composed of great musicians who are actively appearing in the domestic music scene. The project respects the individuality of each member, which is expressed through their inner naturalness, and aims to discover the artistic value of free performance in today's monolithic society.

This year'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stage will feature violinist Sim Jeongeun, along with violinist Choi Yujin, violist Kang Anton, cellist Kang Chanwook, contrabassist Oh Seunghee, flutist Han Seongeun, oboist No Jiyeon, clarinetist Song Minseok, and composer Kim Ingyu. This ensemble will deliver a grand yet delicate and beautiful performance of Korean-style classical music. It will be held at the historic house of Injaegotaek Hagindang, where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ll add a unique charm, making the performance a more unique experience.

PROGRAM

Pérotin (c. 1170-1236)
Viderunt Omnes (excerpt)

김인규 (b. 1984)
Metamorphosis : 영산회상

I. 영산 리체르카레 : 상령산-중령산-세령산

Claudio Merulo (1533-1604)
Ricercar No. 27 from Ricercari Libro Primo
(Torino Manuscript)

Metamorphosis : 영산회상
II. 인터메초 : 가락덜이

Claudio Monteverdi (1567-1643)

Lamento della Ninfa (excerpt) from the 8th
Book of Madrig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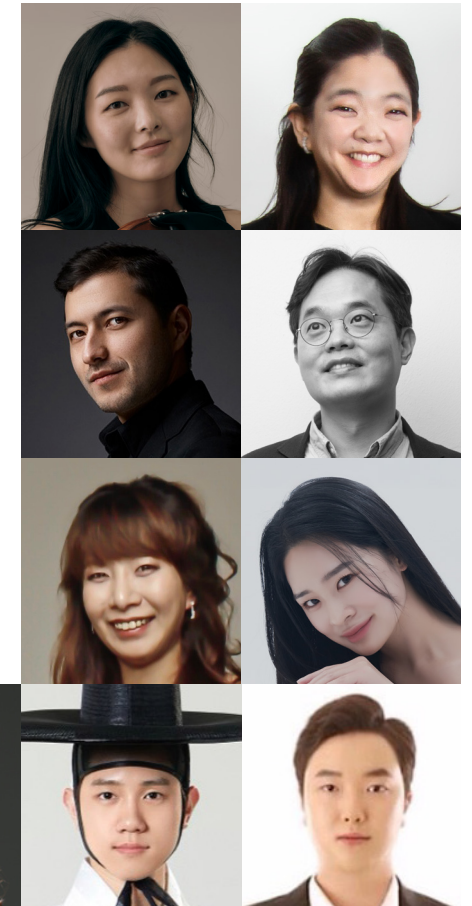
Metamorphosis : 영산회상
III. 환입 변주곡 : 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Jean-Baptiste Lully (1632-1687)
Chaconne (excerpt) from the opera
Phaëton

Metamorphosis : 영산회상
IV. 환상곡 : 타령
V. 피날레 : 군악

바이올린 심정은, 최유진
비올라 강안톤 첼로 강찬욱
콘트라베이스 오승희
플루트 한성은 오보에 노지연
클라리넷 송민석 장구 함동우
작곡 김인규

영산회상은 석가모니의 법회를 찬양한 고려시대의 노래를 바탕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문화의 정수라 불릴만한 작품이다. 영산회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위촉받은 작곡가는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조우하는 상상아래 이 곡을 작업했다. 아주 느리고 명상적으로 시작한 작품은 서서히 인간적 기쁨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상승하는 선율은 더 높은 경지, 초월적 세계로의 상승의 의지를 상징하며 시간과 공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한국&프랑스]

나윤선&벵자멩 무쎬 듀오

[Korea & France]

Younsun Nah &

Benjamin Moussay Duo

8. 16. Sat 20: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벵자멩 무쎬 피아노 연주의 하모니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과 피아니스트 ‘벵자멩 무쎬(Benjamin Moussay)’, 두 예술가의 소리가 한데 엮여 전주의 여름 풍경 속으로 들어온다. 독창적인 표현을 가진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은 1994년 데뷔 이후 삼십여 년간 전 세계 유수의 축제들에서 공연을 펼쳐오면서 열두 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해온 부지런한 예술가다. 벵자멩 무쎬는 프랑스 출신의 연주자, 작곡가, 영화음악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ECM을 통해 독주 앨범 <Promontoire>을 발표하며 국제적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는 지난해 발매된 나윤선의 열두 번째 음반 <Elles>의 수록곡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벵자멩 무쎬의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니나 시몬(Nina Simone),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 비요크(Björk) 등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여성 가객들의 명곡들을 나윤선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였는지를 느껴볼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연주와 목소리가 맞닿드릴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만끽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Younsun Nah's Voice Harmonized with Benjamin Moussay's Piano

Younsun Nah, a jazz vocalist known for her unique expression,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since her debut in 1994, singing at a variety of festivals internationally. She also has released twelve studio album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Benjamin Moussay, a French pianist, composer, film composer as well as educator, released his solo album <Promontoire> through ECM in 2020 and received international acclaim. On the stage of Jeonju Int'l Sori Festival, the two artists will feature a diverse repertoire centered on songs from Younsun Nah's twelfth album “Elles.” The album is Younsun Nah's unique reinterpretation of the masterpieces of legendary female artists including Nina Simone, Edith Piaf, and Björk.

해외초청& 월드뮤직: 대화와 소통 World Music Today

전통과 오래된 것으로부터의 확장을 담아낸 섹션 ‘해외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에서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년을 기념하여 특별프로그램 ‘스페인 포커스’를 기획했다. 바로크 시대의 고음악을 선사하는 <리나 투르 보네트&홍승아&아렌트 흐로스펠트>, 이베리아 반도의 풍성한 음악적 유산이 담긴 민속음악을 들려줄 <비구엘라>,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플라멩코 무대를 선사하는 <떼아드로 레알>까지 스페인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 월드뮤직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에는 네 번째 수상자인 관악기 쇼(shō) 연주자 ‘미야타 마유미’ 명인이 초청되어, 보기 드문 악기 쇼(shō) 연주를 들려준다. 사이프러스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색채가 엮여진 음악을 들려줄 <무슈 두마니>, 브라질 전통과 현대음악의 만남을 선사할 <비시가 70>, 일본의 다양한 북의 역동성과 매력을 전할 <시부시 치리멘타이코>까지 다채로운 세계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The section “World Music Today” which embodies the expansion of tradition and the old, has planned a special program titled “Spain Focu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pain. Featuring Baroque-era classical music by <Lina Tur Bonet & Hong Seung-ah & Arend Grosfeld>, folk music showcasing the rich musical heritage of the Iberian Peninsula by <Vigüela>, and the intense and vibrant flamenco performance by <Teatro Real>, the section offers a chance to immerse oneself in the charm of Spain.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Music Center Foundation, the <Asia World Music Awards> will feature the award's fourth recipient, master shō player Miyata Mayumi, who will perform a rare shō performance. Audiences can also enjoy the traditional Cypriot music with a modern twist by <Monsieur Doumani>, the confrontation between Brazili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by <Bixiga 70>, and the dynamic and charming sounds of various Japanese percussions by <Shibushi Chirimen Taiko>, all in one place.

스페인 포커스 Spain Focus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페인 포커스>를 기획했다.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주간에 전북 관광 홍보와 관광 100선 기념품 전시회를 열고 전북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산을 알리는 계기를 통해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올해 소리축제가 기획한 <스페인 포커스>는 공연을 통해 스페인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나 투르 보네트&홍승아&아렌트 호로스펠트가 고즈넉한 한옥 전통 가옥에서 들려주는 바로크 시대의 고음악, 떼아트로 레알의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플라멩코, 비구엘라가 들려주는 소박한 울림의 민속음악까지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이 녹아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스페인 포커스 공연을 위해 주한 스페인대사관과 올해 처음 개원한 주한 스페인문화원 그리고 스페인문화예술지원센터와 마드리드 시의회까지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5 prepared a special program of "Spain Focu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Spain.

The "Spain Focus" is significant in that it marks the beginning of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performances. Lina Tur Bonet & Hong Seunga & Arend Grosfeld will present Baroque-era classical music in a traditional style Korean hanok house, and Vigüela will show Spanish folk music with its simple yet resonant sounds. In addition, Teatro Real will deliver a vibrant and dynamic flamenco performance. All these performances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diverse charms that reflect Spain's culture, history, and art.



떼아트로 레알의 플라멩코 Flamenco of Teatro Real

8. 17. Sun 16: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플라멩코의 다양한 스타일과 퍼포먼스의 역동성
강렬한 리듬 속 넘치는 생동감의 매력

‘떼아트로 레알(Teatro Real,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은 스페인 공연 예술 및 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선도 기관이다. 전통적인 성악 레퍼토리와 현대적인 레퍼토리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오페라 어워드에서 수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선보이는 무대는 <어센틱 플라멩코, Authetic Flammenco>로 2023년 한 해 동안 42개 도시에서 2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매료시킨 국제적인 공연이다. 격렬한 발구름부터 솔의 우아한 흔들림, 캐스터네츠와 부채의 리듬감 있는 움직임까지 플라멩코의 다양한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을 예술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세계로 안내한다.

A Variety of Styles within Dynamic Performances of Flamenco
The Charm of Vibrant Energy Yielded by Intense Rhythms

"Teatro Real (Madrid's Royal Opera House)" is a leading institution representing Spain's performing arts and music. It covers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vocal repertoires, and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top opera companies as shown in their winning of the International Opera Award in 2021.

Their stage at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itled "Authentic Flamenco," is a performance that has captivated over 250,000 audiences in 42 cities worldwide in 2023. From the intense foot movement to the elegant swaying of the shawls, and the rhythmic moves of castanets and fans, the performance will bring audiences into a world where art and life become mingled together through the diverse styles of flamenco.

리나 뚜르 보네트&홍승아 &아렌트 흐로스펠트

Lina Tur Bonet &
Hong Seunga & Arend Grosfeld

8. 14. Thu 13:30

완주 아원 Wanju Awon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 아원고택 입장료 별도)

* 해설 송현민 *

고즈넉한 한옥에서 듣는
바로크 시대 고음악의 진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리나 뚜르 보네트(Lina Tur Bonet)’,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홍승아’, 국내 유수의 고음악 앙상블과
활동하며 바로크 음악을 다채로운 감성과
스타일로 풀어내는 하프시코디스트 ‘아렌트
흐로스펠트(Arend Grosfeld)’, 이 세 명의
연주자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한 무대로
만난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을
아우르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진수를 소개한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다양한 색채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을 제공한다. 특히, 한옥의 멋과
고즈넉함, 아름다운 풍광이 살아있는 공간인 완주
아원고택에서 펼쳐져 한국의 전통 가옥과 바로크
시대의 고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경험을
즐거볼 수 있다.



The Essence of Baroque Music Experienced in a Tranquil Traditional House

Internationally acclaimed violinist and conductor
Lina Tur Bonet, cellist Hong Seunga who has
gained attention on various international stages
for her delicate yet profound performances,
and harpsichordist Arend Grosfeld who has
collaborated with leading early music ensembles
in Korea, interpreting Baroque music with
diverse moods and styles, will come together
on stage at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e three instrumentalists will introduce the
essence of Baroque music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 Europe. Additionally, they will bring
audiences on a journey to experience the diverse
colors and emotions of Baroque music through
various works by composers from Germany,
Italy, and Spain. The performance at the historic
house of Wanju Awongoteak, which embodies
the elegance, tranquility, and beautiful scenery,
will offer a unique experience wher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Baroque classical
music will become harmonized.

바로크 바이올린 리나 뚜르 보네트

바로크 첼로 홍승아

하프시코드 아렌트 흐로스펠트

PROGRAM

H.I.F.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1번 수태고지

H.I.F. Biber: The Rosary Sonata No. 1
“The Annunciation”

바르톨로메 데 셀마 이 살라베르데:

소나타 테르차

Bartolomé de Selma y Salaverde:
Sonata Terza

안드레아 팔코니에로: La Soave Melodía &
la sua Corrente

Andrea Falconiero: La Soave Melodía &
la sua Corrente

요한 하인리히 슈멜처: 소나타 4번

Johann Heinrich Schmelzer: Sonata Quarta

아르칸젤로 코렐리: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Op. 5 No. 5

Arcangelo Corelli: Violin Sonata in g minor,
Op. 5 No. 5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HWV 359a

Georg Friedrich Händel – Violin Sonata in
d minor, HWV 359a

요한 파울 베스트호프: 슬픔의 모방

Johann Paul von Westhoff: Imitazione del luto

아르칸젤로 코렐리: 라 폴리아, Op. 5 No. 12

Arcangelo Corelli: La Follia, Op. 5 No. 12

비구엘라의 민속음악

Folk Music of Vigüela

8. 15. Fri 20: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이베리아 반도의 풍성한 음악적 유산이 담긴 흥겨운 민속음악

‘비구엘라(Vigüela)’는 1980년대 중반 스페인의 카스티야 라 만차의 톨레도에서 결성되어 30여 년간 스페인 민속음악의 정수를 지켜온 그룹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풍성한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재해석이나 해체보다는 전통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과 탐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의 음악은 만체고 기타(manchecho guitar), 레벡(rebec,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찰현악기) 및 탬버린, 그리고 프라이팬, 향아리 등 다양한 전통악기와 일상 도구를 사용하면서, 마을 사람, 가족, 친구가 모여 즐기는 민속적 일상, 일상적 민속의 소리풍경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유라시아 대륙 저 반대편의 흙에 뿌리 내려온 깊고 소박한 울림을 박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비구엘라의 흥겨운 무대로 만나보자!

Lively Folk Music Filled with the Rich Musical Heritage of the Iberian Peninsula

Vigüela, formed in the mid-1980s in Toledo, Castile-La Mancha of Spain, has been preserving the essence of Spanish folk music for over 30 years. While inheriting the rich musical heritage of the Iberian Peninsula, the group focuses on the exploration of the essence of traditional music rather than modern reinterpretation or deconstruction. Their music, performed using traditional instruments such as manchecho guitar, rebec, tambourine, and daily objects like frying pans and pots, brings the soundscape of life in village with families, neighbours, and friends onto the stage. Let us experience the joyful stage by Vigüela, where the deep and humble resonances rooted in the soil of the other side of the continent harmoniously meet the clapping sound!

AC/E
ACCION CULTURAL
ESPAÑOLA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거장 미야타 마유미의 쇼(笙)

[Asia World Music Award]

Master Miyata Mayumi's Shō

8. 16. Sat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네 번째 수상자
미야타 마유미(宮田まゆみ) 명인이 선보이는
관악기 쇼(shō)의 매력

미야타 마유미(宮田まゆみ) 명인은 한반도 전통악기인 생황의 역사적 친척이라 할 수 있는 관악기 쇼(shō) 연주자이다. 도쿄 출신으로, 대학에서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일본 전통 궁중음악인 가가쿠(아악)와 쇼의 매력에 이끌려 20대 중반에 새로운 음악적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가가쿠를 비롯한 전통 기반의 작업은 물론이고, 존 케이지(John Cage), 토오루 타케미츠(Toru Takemitsu)를 비롯한 현대음악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선보이는 등 너른 예술의 지평 위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뚜렷이 꾸려온 현대 일본음악의 거장이기도 하다.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협력 관계인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의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네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미야타 마유미 명인은 시상 세리모니에 이어 약 한 시간여의 독주를 선보인다. 가가쿠에서부터 현대 일본 작곡가의 음악까지, 명인이 펼쳐온 음악의 풍경을 함께 걸으며 쇼(shō)라는 보기 드문 악기의 매력을 접해볼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 해설 박종현 ✧

Winner of the 4th Asia World Music Award
The Charm of Shō Presented by Master
Miyata Mayumi

Miyata Mayumi is a master of shō, a wind instrument that can be said as a historical relative of saenghwang -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Born in Tokyo, she studied piano at university but was drawn to the charm of gagaku (court music) and the shō, leading her to embark on a new musical journey in her mid-20s. Since then, she has explored traditional genre-rooted music including gagaku, and also collaborated with various contemporary composers, including John Cage and Toru Takemitsu, showcasing her unique artistic vision across a broad genre spectrum.

Selected as the fourth recipient of the “Asia World Music Award” by the World Music Center Foundation, which collaborates with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e master will present a one-hour solo performance following the award ceremony. This will be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unique charm of the shō, while exploring the musical landscape created by the master, which spans from gagaku to contemporary Japanese compositions.

sofi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ORLD MUSIC CENTER

[사이프러스]
무슈 두마니
[Cyprus]
Monsieur Dumani

8. 16. Sat 19: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사이프러스 전통음악에 현대적 색채를 가미한
독특한 스타일의 향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의 3인조 밴드 ‘무슈 두마니(Monsieur Doumani)’는 부주키(그리스 전통악기) 계열의 현악기 초우라스(Tzouras), 트럼본, 어쿠스틱 기타에 더하여 루프 페달 및 여러 전자음악적 장치를 더하여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해낸다. 동부 지중해 음악에 뿌리를 둔 채 때로는 아방가르드 포크의 접근을 연상케 하는 화법으로 그들만의 음악을 꾸려내면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동시에 보여준다.

영국 송라인즈(Songlines)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그룹’상을 수상(2019), 워맥스(WOMEX)와 워매드(WOMAD), 시게트 페스티벌(SZIGET) 등 세계 유수 페스티벌의 무대를 누빈 이들의 흥겹고도 때로 낯선 사운드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없어진다. 전통과 미래,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지중해풍 사이키델릭의 파도를 경험할 흔치 않는 기회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



A Unique Stage that Blends Traditional
Cypriot Music with Modern Touches

The trio “Monsieur Doumani” from Cyprus,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Europe and Asia, creates a unique sound by blending the Tzouras (a stringed instrument that belongs to the bouzouki family), trombone, acoustic guitar, loop pedals, and various electronic music devices. Rooted in Eastern Mediterranean music, the band crafts their own sound with a unique style that occasionally evokes avant-garde folk, seamlessly blending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The trio won the “Best Group” award at the UK Songlines Music Awards in 2019 and has performed at world-renowned festivals such as WOMEX, WOMAD, and SZIGET. Their performance will bring their lively yet sometimes unfamiliar sounds to the stage of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hich will be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Mediterranean psychedelic sound in which traditionality and futurity, reality and fantasy can be found together.



[브라질]
비시가 70
[Brazil]
Bixiga 70

8. 17. Sun 19: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브라질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밴드
음악에 온몸이 저절로 흔들흔들!

‘비시가 70(Bixiga 70)’은 2010년 결성되어 현 월드뮤직 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밴드다. 아프리카계, 라틴계 음악을 포함하여 브라질의 풍성한 소리사를 구성해온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며, 예술 및 활동을 통해 현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음악은 펑크, 재즈, 아프로비트, 삼바 등 전통과 현대의 리듬이 한데 섞여, 복잡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춤출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브라스와 퍼커션의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지는 밴드의 음악들은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거리게 한다. 2023년 발매된 최근 앨범 <Vapor>(2023)을 포함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보여줄 전통적 리듬과 강렬한 그루브가 전주를 찾은 관객들을 신명나게 할 것이다.



Blending of Traditional and Modern
Sounds of Brazil that Makes Our Body
Dancing!

“Bixiga 70” is an ensemble formed in 2010 and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in the world music scene. Combining various elements that have shaped Brazil's rich musical history, including African and Latin musical heritage, the band strongly conveys messages about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Brazil through their artistic activities. Their music blends traditional and modern rhythms such as punk, jazz, Afrobeat, and samba, creating complex yet catchy melodies that anyone can sing along to and dance to. The band's music, with its brass and percussion sounds, naturally makes audiences want to move their body. The repertoire that includes various pieces from their recent album released in 2023, <Vapor>, will showcase traditional rhythms and intense grooves that will energize audiences who visit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일본]
시부시 치리멘타이코
 [Japan]
 Shibushi Chirimen Taiko

8. 17. Sun 18:3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전통 북을 이용한 와다이코 연주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멋**

청소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부시 치리멘타이코(志布志ちりめん太鼓)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를 찾는다. 빠른 템포의 리듬과 절도 있는 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을 고조시키는 연주가 매력적인 이 팀은 이번 무대에서 와다이코를 선보인다. 와다이코는 전통 북(太鼓/태고)을 이용한 연주 형식을 통칭하는 말로, 와(和)는 일본, 다이코(太鼓)는 북을 의미한다. 고대부터 종교의식, 축제, 무속행사, 군사용 신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는 공연예술의 형태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북을 사용하는 합주를 말한다.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독특한 음색을 가진 북의 매력을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The Vivid and Dynamic Beauty of
 Wadaiko Traditional Drum Performance**

The Shibushi Chirimen Taiko will take the stage at the 2025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Known for their fast-paced rhythms and precise sounds that captivate audiences, this group will showcase their performance of Wadaiko at the event. Wadaiko is a term that refers to a form of percussion music using traditional drums (taiko) - “wa” means Japan, and “daiko” means drum. It has been used for various situations since ancient times, including religious ceremonies, festivals, shamanic rituals, and military signals, and has evolved into a form of performing art in modern times. Generally, wadaiko refers to an ensemble between multiple types of drums in harmony. This performance will offer audienc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unique sounds and charm of drums of various sizes and shapes.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Kids & Family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진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섹션! 올해는 ‘폴란드 전통 노래 교실 <코시>’와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2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폴란드 여성 4인조 앙상블인 ‘코시’는 어린이 관객들에게 폴란드 전통 노래와 멜로디, 화음 등을 알려주며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XR판소리는 XR(확장현실)과 음악극의 융합을 시도한 작품으로 관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움직이며 극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동물농장’ 우화를 기반으로 하며, 전통 소리의 매력을 즐기면서 참여형으로 펼쳐지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The “Kids & Family” section is designed for families and children audiences. This year, two works of “Polish Traditional Song Class <Kosy>” and “Pansori Enjoyed through XR <Four Feets are Good, Two Feet are Bad>” will be staged. “Kosy,” a Polish female quartet, will introduce Polish traditional songs, melodies, and harmonies, offering a new cultural experience to kids. XR Pansori means a work that blends XR (extended reality) and musical theater, allowing audiences to enter a virtual space through their smartphones and thereby participate in the performance. Do not miss the works based on the fable from <Animal Farm>, which offers a unique experience where audiences can enjoy the charm of traditional sound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

코시

[Workshop for Traditional Polish
Folk Song]
Kosy



폴란드 여성 4인조 앙상블과의 특별한 음악 여행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폴란드 전통 노래 워크숍

‘코시(Kosy)’는 알렉산드라
그로노프스카(Aleksandra Gronowska),
카샤 파코사(Kasia Pakosa), 아나스타지아
소스노프스카(Anastazja Sosnowska), 말비나
테레사 라벤다-두친스카(MALWINA TERESA
RABENDA-DUSZYŃSKA)로 구성된 폴란드의
여성 4인조 앙상블이다. 2019년 결성, 그해
국제 미코와이키 민속음악 축제(International
Folk Music Festival Mikołajki Folkowe)에서
수상하였으며, 이후 세계 최대 규모 월드뮤직
축제의 하나인 위맥스(2021)를 포함하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유럽
각지로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2022년 데뷔 음반
<SIEW(씨앗)>을 이듬해 심포니 형식으로 편곡하여
<SIEW Symfonicznie>로 발매하기도 했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라이브 연주와 함께 폴란드 전통음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관객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인디언 하모니움, 프레임 드럼,
퍼커션 등 다양한 악기의 생생한 반주에 맞춰
폴란드 전통 노래를 배우고 부른다.
폴란드 전통 노래의 멜로디와 화음을 익히고,
폴란드 각 지역과 남부 실레시아 지역의 전통
노래에 담긴 의미와 발음도 배우며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Enjoying XR Pansori through Game]
Four Legs are Good,
Two Legs are Bad



8. 15. Fri - 17. Sun 10:30/13:30
남부시장 모이장 Moijang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 비지정좌석)

Pansori Meets XR Technology Immersive Performance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through Gaming

Archivers Studio is a production-studio that aims
to fuse XR (extended reality) and music theater.
The work unveiled at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 based on George Orwell's allegorical
dystopian novel "Animal Farm," explores
questions on power, oppression, and human
nature. The festival performance is prepared as
an innovative immersive show that reinterprets
"Animal Farm" through pansori and combines it
with XR technology. Featuring great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including Lee Bonggeun
(pansori), Lee Hyuncheol (percussion),
Kwon Seoyoung (gayageum), and Kim Somi
(accordion), the performance offers a stunning
musical experience. Audiences can choose their
own animals using their smartphones and act
freely in a virtual space to participate in the play.
Additionally, guided by performers, audiences
will be able to experience a unique world
alongside the other animals within the farm.

판소리와 XR기술의 만남
온 가족이 함께 게임으로 즐기는 몰입형 공연

아키버스 스튜디오는 XR(확장현실)과
음악극의 융합을 표방하는 창제작 스튜디오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조지 오웰의 우화적 디스토피아
소설 『동물농장』을 기반으로 권력과
억압,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풀어내고자
했다. 이 작품은 2025년 프랑스 뉴이미지즈
페스티벌(NewImages Festival)의 'XR
Distribution' 마켓에 출품되어, 한국적 소리와
첨단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해외 무대에 선보이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동물농장』을 판소리로
재해석하고 XR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몰입형
공연이다. 소리꾼 이봉근을 비롯해 이현철(타악),
권서영(가야금), 김소미(아코디언) 등 정상급
국악 연주자들이 참여해 멋진 연주를 선사하고,
관객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만의 동물을
선택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극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소리꾼의 안내에 따라
농장의 동물들과 함께 색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관객들은 전통적 소리 요소의 매력을 즐기면서
동시에 예술과 기술에 관한 독특한 체험과
사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로컬 커피전문점 '길 위의 커피'가
전주의 멋과 흥을 더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17년 째
커피 맛과 품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16톤
국내에서 옥션 커피를 가장
많이 낙찰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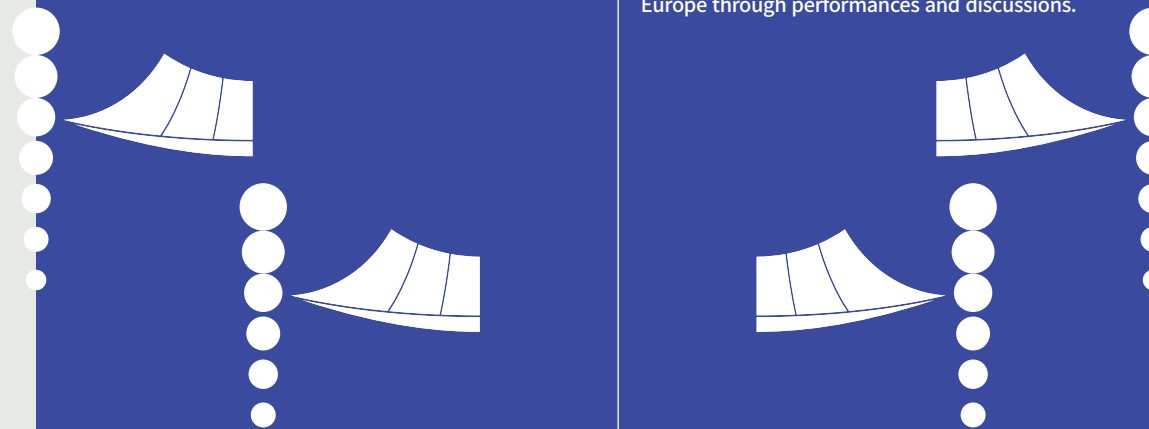
전주, 커피가 맛있는 도시
길 위의 커피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술이 축적된 기업 **길 위의 커피** www.gilcoffee.com

찾아가는 소리축제& 아카데미: 글로벌 랩 Glocal Lab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 글로벌 랩’ 섹션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리학술포럼>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창조적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예술 및 공연,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별 학회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마스터 클래스>는 이난초 명창과 윤진철 명창이 판소리 전공 학생들에게 소리 수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관객들은 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소리캠프>는 사전에 모집한 2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축제 기간 중 공연 관람 및 전문가 특강, 아티스트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으로 가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올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세계음악여행 콘서트>는 지난 7월 몽골, 북미, 서아프리카, 유럽의 악기 이야기를 음악과 대담으로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The “Glocal Lab” section features the <Sori Academic Forum> in collaboration with academic socie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ing in Korean traditional arts, performances, festivals, and related fields under the theme of “Creative Platform Connecting Locals and the Global.” In the <Master Class>, pansori masters Lee Nancho and Yoon Jincheol teaches students specializing in pansori, with audience members able to observe the session. <Sound Camp> will be held for participants selected in advance, offering experiences of festival performances, expert lectures, and interactions with artists. Additionally, the <Arts Caravan> will visit 14 subareas in Jeonbuk States as a year-long project. The <World Music Journey Lecture-concert> concluded successfully in July, presenting stories about musical instruments from Mongolia, North America, West Africa, and Europe through performances and discussions.



소리학술포럼

Sori Academic Forum

8. 13. Wed – 17. Sun 14:00

중회의장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1F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소리학술포럼’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창조적 플랫폼’을 주제로 한국 전통예술 및 공연,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별 학회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연예술 현장과 학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통예술 공연과 축제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의 음악과 예술가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올해는 한국국악학회, 한국공연문화학회, 세계음악학회, 한국축제포럼,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가 함께 참여한다.

The 2025 Jeonju Int'l Sori Festival's "Sori Academic Forum" is held in collaboration with academic socie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ing in the fields of Korean traditional ar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under the theme of "Creative Platform Connecting Locals and the Global." Through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e performing arts community and academia, the forum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raditional ar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and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local music and artists. This year's forum will feature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the Research of Performance Art and Culture, the Korean Society for Worldmusic, the Korea Festival Forum, and the Art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한국국악학회 : 한인 디아스포라와 음악-미국·중국·일본의 사례 8. 13. Wed

발제 1. 하와이-코리안(Hawaii-Korean) 정체성과 코리안 드러밍(Korean Drumming)

- 최리(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

발제 2. 한국 전통 예술의 이상화: 21세기 재미동포의 풍물/사물놀이 하기

- LA, Michigan, New York을 중심으로 - 김선홍(미시간대학교 박사 후보)

발제 3. 제일 한국인의 신민요-노래로 그린 조선, 조선인 - 이준희(전주대학교 강사)

발제 4.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가 계승한 향일음악의 전개 양상 - 반혜성(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진행 | 권도희(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 임미선(단국대학교 교수), 박소현(영남대학교 교수), 장윤희(전북대학교 강사)

한국공연문화학회 : 한국공연예술의 디아스포라적 속성과 현상 8. 14. Thu

발제 1. 제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음악 - 유영민(전북대학교 강사)

발제 2.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본 사물놀이의 세계화와 문화적 재구성 - 정재호(사물놀이연구소 대표)

발제 3. 문화적 디아스포라로서의 혼종적 창작 무속-추다해차지스를 중심으로 - 이사람(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발제 4. 최승희 춤의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디아스포라적 재구성:

카자흐스탄 아리랑 가무단의 <물동이 춤>의 사례연구 - 양민아(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연구교수)

진행 | 이태화(고려대학교 초빙교수)

토론 | 김성철(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주영호(청배연희단 대표), 임승범(국가유산청 조사연구기록과장),

오정은(이북5도위원회 문화유산위원)

세계음악학회 : 공연예술축제의 과제와 미래 8. 15. Fri

발제 1. 축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 박미경(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2. 세계를 만나는 박지하의 “그냥 음악” - 김희진(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발제 3. 국내 음악축제 속의 세계음악: 그 뿌리와 성장 - 김철두(더 블루음악원장)

발제 4. 한국 재즈 축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소비를 넘어 공동체와 소리의 장으로
- 김승민(예천문화관광재단)

진행 | 권현석(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연구원)

토론 | 장윤희(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 정서은(경북대학교 외래강사)

한국축제포럼 : 전통예술공연과 전주세계소리축제 8. 16. Sat

발제 1. 전통공연예술제와 지역축제 - 최용석(남원시청 관광과 축제전문관)

발제 2. 전통공연 공연예술제 특징 연구 - 창작연희극 ‘KARMA’ 중심으로 -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 3. 전통공연예술제의 국악콘텐츠 - 유대용(성신대학교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발제 4. 전통공연예술제 기반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발전 방안 - 이상규(전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진행 | 안남일(고려대학교 교수)

모더레이팅 | 진혜인(한국축제포럼 사무간사)

토론 | 홍민정(세한대학교 교수), 이금섭(정음수제전보존회 감독), 김원선(전북대학교 교수), 윤영걸(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 전북의 음악과 미래 예술가 8. 17. Sun

발제 1. 20세기 전반기 전북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과 의의 - 판소리·산조·풍류·농악을 중심으로

- 황미연(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문위원)

발제 2. 20세기 전북의 서양음악 - 이유(전북대학교 음악과 강사/전주MBC ‘이유있는 클래식’ 진행자)

발제 3. 전북의 예술인 현황과 상설공연을 통한 미래 예술가 육성 방안

- 홍승광(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발제 4. 전북 청년예술가가 체감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현실과 과제 - 김민경(중앙대학교 석사)

발제 5. 소리축제: 전통과 현대, 국악과 양악의 상호발전적 공존을 위하여 - 이미배(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진행 | 신은주(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토론 | 노복순(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박동석(국악작곡가), 조예찬(성악가)



한국국악학회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한국공연문화학회
The Research of Performance Art and Culture

세계음악학회
KOREAN SOCIETY FOR WORLD MUSIC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KOREA FESTIVAL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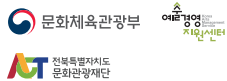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8. 15. Fri - 8. 16 Sat 15:30
하얀양옥집 Hayanyangokjip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2025 마스터 클래스’는 판소리 전공생들이 명창에게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되며, 관객들은 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에게는 홍보가의 ‘제비노정기’ 대목을 배워보는 시간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에게는 소리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자세부터 성음, 발음, 목구멍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본다. 우직하고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온 명창의 소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The “2025 Master Class” will be held on August 15 and 16, offering participants the opportunity to learn pansori from renowned pansori singers Lee Nancho and Yoon Jincheol. Through the opportunity to learn pansori from two masters who have walked their paths with steadfast dedication, participants will experience the unique charm of Korean traditional music.



8. 15. Fri 이난초 명창



8. 16. Sat 윤진철 명창

찾아가는 소리축제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2025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5년부터 미래 관객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직접 찾아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7월과 8월 중 고창, 부안, 임실, 장수로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대로 찾아가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

“2025 Arts Caravan” has been held in two parts, the first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Established in 2015 as part of a future audience development project, the “Arts Caravan” has been brought a variety of performances to residents of the Jeonbuk State by visiting 14 subarea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project visited Gochang, Buan, Imsil, and Jangsu in July and August, and is scheduled to visit various venues within Jeonbuk Stat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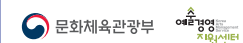
소리캠프

Sori Camp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

‘2025 소리캠프’가 8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주 일대에서 열린다. ‘흩뿌려진 소리의 기억을 찾아서 : 디아스포라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국내 한국음악학과 중심의 음악 관련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2기 모집을 진행했으며, 선정된 25명은 공연 관람, 전문가 특강, 국내외 예술가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The “2025 sori camp” will be held from August 14 (Thu) to 16 (Sat) at various locations in Jeonju including the Sori Arts Center. Under the theme “In Search of the Memory of Scattered Sounds: A Diasporic Approach,” the camp will move beyond theory-based education to offer field-oriented arts education programs. The project is targeted at students specializing in music from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Following last year’s successful program, the new application process has been completed. The selected 25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watch performances, listen to lectures by experts, and interact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fostering their growth as professional artists and exploring potential career paths.



맛있는 소리축제 Tasty Sori Festival

운영시간

8. 13. Wed - 17. Sun

12:00~22:00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다채로운 공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올해 소리축제가 준비한 푸드트럭에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이 다양하다. 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들이 한가득 ‘탑스타’, 옛날핫도그와 닭꼬치 등 메뉴 구성의 ‘먹깨비’, 달달함을 가득 전하는 ‘아로하츄러스’, 타코야키와 핫도그 등이 준비되어 있는 ‘잇츠스낵’, 닭강정과 감자튀김 등을 맛볼 수 있는 ‘나만봄’, 팔빙수와 소떡 메뉴의 ‘금마커피’까지 맛으로 즐기는 소리축제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실천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Enjoy the colorful performances of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and delicious food! This year's Sori Festival has prepared a variety of food trucks with menus that can be enjoyed as snacks: "Top Star" with cool drinks to beat the summer heat, "Mukkaebi" with its menu of old-fashioned hot dogs and chicken skewers, "Aloha Churros" with a great sweetness, "It's Snack" with takoyaki and hot dogs, "Namanbom" with chicken fries, and "Geumma Coffee" with red bean ice cream and rice cake menus. This year, the festival will prioritize the use of reusable containers to lead the way in eco-friendly lives.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 World Music Journey Lecture-Concert

7. 02. Wed - 7. 23. Wed 매주 수요일, 19:30
하안양옥집 Hayanyangokjip

월드뮤직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가 7월 매주 수요일, 하안양옥집에서 열렸다. 마두금 연주자 김연준, 테오르보 연주자 윤현종(장유진과 함께), 밴조 연주자 장현호, 코라 연주자 정환진(조재은과 함께), 젊은 월드뮤직 연주자들이 몽골, 북미, 서아프리카, 유럽의 악기 이야기를 음악과 대담을 통해 선사했으며, 각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The World Music Center foundation and the 2025 Int'l Sori Festival jointly organized the "World Music Journey Lecture-concert" series, which took place every Wednesday in July at Hayanyangokjip. Featuring morin khuur player Kim Yeonjun, theorbo player Yoon Hyunjong (with cellist Jang Yujin), banjo player Jang Hyunho, and kora player Jeong Hwanjin (with dundun player Jo Jaeun), young talented performers shared their music and related stories about instruments from Mongolia, North America, West Africa, and Europe, offering a special opportunity to experience less-focused musics and cultures.

사회 박종현(월드뮤직센터 기획자)

7. 02. Wed

마두금 연주자 김연준



7. 09. Wed

테오르보 연주자 윤현종(장유진과 함께)



7. 16. Wed

밴조 연주자 장현호



7. 23.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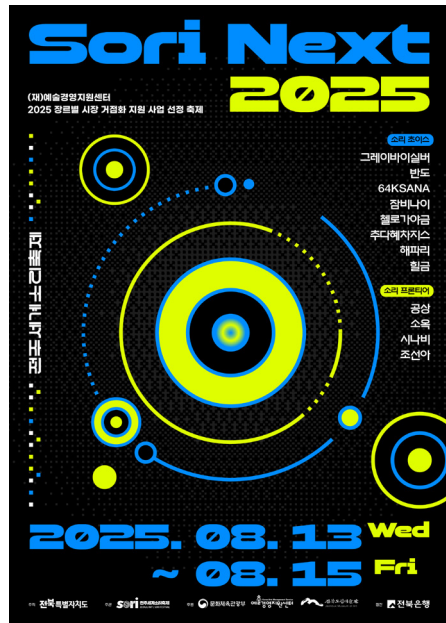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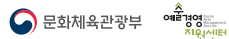
코라 연주자 정환진(조재은과 함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

Music Market
<SORI NEXT>



* 뮤직마켓 <소리 넥스트>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프로그램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로서 축제의 외연을 마켓으로 확장하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소리 넥스트(SORI NEXT)’를 새롭게
선보인다.

‘소리 넥스트’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작품 유통과 실질적인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공연예술 유통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로, 예술성과 시장성,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소리
넥스트’는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기획
및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다.

The Jeonju Int'l Sori Festival, selected as a
festival for the <2025 Genre-Specific Market
Hub Support Project by the Arts Management
Service>, launches “SORI NEXT” in order to
expand the festival’s scope by including a
market and to take a new role and responsibility
as a distribution platform.

“SORI NEXT” is a platform that supports the entry
of traditional music-based arts organizations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and
promotes the distribution of their works and
collaborations. This is an experimental attempt
to create a sustainable ecosystem within the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market, showcasing
artists who possess artistic excellence, market
potential, and growth probability. “SORI NEXT”
will serve as a venue for artists and experts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of collaborative
production and cooperation, and as a
meaningful space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traditional music.

전체개요

| 구분 | 내용 |
|-------|---|
| 프로그램 | 기획형 쇼케이스, 공모형 쇼케이스, 국내외 전문가 토크, 팸투어, 네트워킹 |
| 기획단 | 김희선(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기획단장 최은혜(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콘텐츠운영부장) 계명국(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감독) 김미소(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이수정(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천재현(전통예술 연출가,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
| 실행단 | 장은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기획1팀 팀장 직무대행) 전성호(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기획2팀 팀장) 장보람(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기획2팀 팀원) 최유영(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기획1팀 팀원) 최현주(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기획2팀 팀원) 금수민(덩기덕 크리에이티브 PD) 유현진(위윈더그룹 PD) 정혜미(스테이지402 PD) |
|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 협력 |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

해외전문가

| 이름 | 국가 | 소속 |
|---------------------|--------|---|
| Bożena Szota | 폴란드 | 에스노 포트 페스티벌 감독(Ethno Port Festival) |
| Claudia Ballardelli | 캐나다 | 아셰 월드 페스티벌 감독(Axé Worldfest) |
| Haiying Song | 캐나다/중국 | 프로덕션 야리 감독(Productions Yari) |
| Jean Lee | 미국 | 아이엠지 아티스트 총괄 프로듀서 (IMG Artists) |
| Lisa Branigan | 영국 | 리플레이 뮤직 C.I.C & 그린 퓨처스 페스티벌 창립 디렉터 (Re-Play Music C.I.C & Green Futures Festivals Founding Director) |
| Rachel Cooper | 미국 | 아시아 소사이어티 감독(Asia Society) |
| Shandy Gan | 홍콩 |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
| Vanessa Chen | 대만 | 웨이우잉 국립가오슝예술센터 프로그래머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Weiwuying) |

국내전문가

| 이름 | 소속 |
|-----|---|
| 박준우 | 한국대중음악상 사무국장(Korean Music Awards) |
| 백현태 | 강릉아트센터 공연기획팀 PD(Gangneung Arts Center) |
| 안주은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팀장(Busan Culture Center) |
| 윤정혜 | 수림문화재단 예술사업부 팀장(Soorim Cultural Foundation) |
| 이재훈 | 뉴스시스 기자(Newsis) |
| 전선미 | 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PD(Jeju Arts Center) |
| 조정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사업부 본부장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
| 차현나 | 서울남산국악당 실장(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
| 탁연재 | 고양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과장(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
| 한윤진 | 서울남산국악당 공연예술팀 과장(Seoul Donhwamun Traditional Theater) |

스태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집행위원장 **김화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부위원장(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상임위원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

정지영 前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신기동 한미회계법인(제1본부 본부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웅 전북일보 국장(완주 주재)
김일규 판소리 명창(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금섭 변호사(법무법인(유)광장(Lee&Ko)변호사)
백학기 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영주 (주)코리아오티씨 연구소장/중구문화재단 이사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前CNN한국지국장)
심인택 우석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前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왕기석 판소리 명창(前국립민속국악원장)
유희철 前전북대학교병원장(간담체이식혈관외과)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조유식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고투자책임자(설립자)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무연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집행위원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강권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악장
윤중강 음악평론가/연출가
이태백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 교수
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
허윤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블랙스트링 대표
김성국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천재현 연출가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무대팀

최은혜 부장

기획1팀

장은옥 팀장
이은주 팀원
신문희 팀원
최유영 팀원

기획2팀

전성호 팀장
임주미 팀원
장보람 팀원
최현주 팀원

운영지원부 || 홍보팀 행정팀

임태영 부장

홍보팀

박수경 팀장
이지환 팀원
유일한 팀원
권유리 팀원
박서연 팀원

행정팀

박정환 팀장
노슬비 팀원
임수정 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산업과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경영 문화산업과장

박재현 예술육성팀장

김기은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기술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김응완 김종훈 김유정 장세웅 진영준

운영 및 안전

권수현 김여명 김주희 박수진
배옥진 오다인 이미선 이현선
이종길 정보빈 주채현
그랜드시큐리티
버스커즈팩토리

하드웨어 시스템

전주MBC프로덕션

축제ESG 운영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김다울 프리데코
허지현 프리데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스태프

이용재 사무처장

경영관리부
고경환 부장
임익종 정범수 차장
이동수 과장
최미송 유민정 대리
나혜연 주임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차장
이안나 강성웅 과장
김미라 대리
강석민 주임
권주익 김민지 엄세훈 인턴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박은성 백우진 대리
배태호 이재훈 기계감독
장정규 과장
연혁찬 안승주 박수영 이후인

무대감독

박영모 팀장
남성훈 차장

정영모 조종호 장준오 음향감독

박성진 차장

송두영 과장

김찬웅 고은빈 박대한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황이동 부장
김미미 차장
안은홍 대리
양현규 송성은 김하영 주임
하명경 인턴

소리천사

운영팀 - 기획·무대

김민철 양소영 전수영 류지관
이윤하 황정인 최은효 김예지
임슬기 유나연 조운주 박가현
이윤지 박하정 박세빈 김가현
김소희 윤지윤 조희현 김서준
오윤지 이채은 박채영 양채린
신혜원 정지우 김미연 오지은
주영광 이용수 서명자 신숙경

운영팀 - 행사운영

황윤찬 장지훈 서연지 신혜림
조경준 이가안 황규진 김태림
한수한 손주인 고하영 정규진
전민규 상형준 최서영 권아영

홍보팀

김희수 김수민 김주희 신혜원
김서연 이나현 이도현 유예지
김영호 임가연 이연우 강초연
김다은 이성경

이강주

이강주(梨薑酒)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로서, 전통소주에 배(梨:배나무 이)와 생강(薑:생강 강)이 들어간다 하여 이강주라 불리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이강고(梨薑膏)라 불렸습니다.

이강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멥쌀과 누룩으로 발효시킨 약주를 증류하여 알코올도수 35°의 전통소주에 배와 생강, 계피 그리고 울금 추출액을 넣은 후 마지막으로 꿀을 첨가하여 6개월 이상 숙성, 여과하면 이강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강주는 계피의 향기에 배와 생강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나며 울금과 꿀이 첨가되어 있어 많이 마신 뒤에도 머리가 맑아 뒤끝이 깨끗한 술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

청량감을 더해 줌

생강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 서서히 취하게 함

울금

심신을 안정시키며 숙취를 보완함

계피

은은한 향이 입안에 감돌며 첫 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줌

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19° 25° 38°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하계올림픽 전복 유치를 기원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LYMPIC COMMITTEE



